

# 장보고 해상활동의 재조명과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

---

## 머리말

세계사를 돌이켜 보면,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깨우치게 된다. 1588년 도버해협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20세기 후반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로 만든 것도 미국의 강력한 해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흔히 우리의 민족사에는 해양배척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다. 해양활동을 천대시하고, 해양을 통한 교류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타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후손들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와 같은 패배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선조들 중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깨우쳐줄 수 있는 위대한 해양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콜롬버스가 1492년에 북미대륙을 발견한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 장보고는 이보다 664년이나 앞선 828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였으며, 동남아와 중동지역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해상무역제국’을 건설하였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가 모험정신을 물려주었다면, 국제 해양교류를 획기적으로 중대시킨 장보고는 ‘세기적인 해양경영모델’을 남겨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장보고는 1170년 전에 ‘아시아 해양교류체제’를 완성한 위대한 해양경영인이었다. 그래서 장보고는 중국의 「신당서」나 일본의 「속일본후기」와 같은 공식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장보고를 연구한 국내외 학자들은 ‘장보고의 활동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동방의 해상왕’, ‘상업제국의 군주’, ‘천고의 위인’ 등 현란한 용어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만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대한 결과속에 은밀히 감춰진 끈질기고 지혜로운

성공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속에 ‘장보고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해양경영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장보고 경영모델’에는 전략적 제휴, 현지화 전략, 네트워크 구축, 특정계층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 물류기지 활용, 막강한 정보력 등 가히 현대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장보고의 해양경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에 도움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해사정책연구실의 임종관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필자는 이 연구를 맡겨주시고 지도해 주신 정필수 부원장과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또 내용을 감수해주신 강종희 실장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또 연구심의회에서 여러가지 내용보완을 조언해주신 최동현 박사와 장학봉 박사, 그리고 자료수집에 협조해주신 전찬영 박사와 황진희 연구원, 해양수산부의 관계자 및 장영준 사무관계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장보고 해상활동 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오신 선배들께 경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長 洪承湧

## <ABSTRACT>

# **A Managerial Interpretation of Jang Bo-Go's Maritime Activities and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Promotion of Maritime Industries for the 21st Century**

Jang Bo-Go was the most successful leader in the East Asian maritime trade industry in the first half of the 9th century. He had been the great sea trader unknown to the people due to lack of research on his lif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But since the 1980s many reports on his activities have been published and in recent years some scholars have tried to revitalize 'Jang's pioneer spirit' into national maritime thinking.

This study reviewed Jang Bo-Go's maritime activities and discussed determining factors of his success in East Asian maritime business and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the model of international maritime management.

This research pointed out that Jang had operated two systems, of which one was the 'Cheonghae-Jin System' and the other, 'East Asia System'. Cheonghae-Jin was not only a strategic alliance system with Silla Dynasty to sweep away pirates but also a basic organization to achieve his private goal to obtain the absolute commandship of East Asia sea trade. His East Asia System was a giant network based on Cheonghae-Jin in Silla, Hakata in Japan, Cheoksan-Po and Yangjoo in Tang(China) to promote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Jang's maritime management model ha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factors relevant to the present time : scope of trading in geography, complex trade pattern(exports, imports, intermediary trades, and liaison trades), transport patterns(direct transport, transshipment, and use of logistics hub system).

According to a public-opinion poll about Jang Bo-Go and maritime activities which was carried out by MOMAF in December 1998, most Korean people recognize Jang's activities and the importance of maritime activities to the national economy. But this recognition remains at a level of ideological perception. Therefore to permeate his pioneer spirit, it is necessary to make known the historical facts that Jang Bo-Go built a single maritime management system covering East Asia and related determining factors to his success as a sea trade commander.

## 장보고 해상활동의 재조명과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

장보고는 9세기 초에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위인이었으나, 그에 관한 기록이 매우 빈약하였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었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장보고에 관련된 논문들과 저서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장보고 정신'을 재현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이 연구는 장보고가 해상활동에서 성공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개척의 '장보고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또한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보고가 구축했던 체제를 분석한다는 시각에서 그의 해상활동을 재조명하였음. 그 결과, 장보고는 청해진체제와 동아시아체제를 구축하였는바, 청해진체제는 '바다를 지배한다'는 그의 전략적 의지가 담긴 기본체제임과 동시에 신라왕과의 전략적 제휴체제였음. 그리고 장보고의 동아시아체제는 신라의 청해진, 일본의 하카다, 산둥반도의 적산포, 양자강 하구의 양주 등을 전략기지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으며 각각의 기지들은 독특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음. 이러한 장보고의 해상경영모델은 무역의 범위(범위의 경제), 무역형태(수출입, 중계무역, 연계무역), 주요 고객(왕족, 중앙귀족, 지방부호 및 관리), 추진방식(현지화, 네트워크 구축, 연계체제 구축), 운송방식(직접운송, 위탁연계운송, 물류기지 활용) 등에 있어서 가히 현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해양수산부가 1998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인지도는 다분히 관념적인 인식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장보고가 1170년 전에 신라, 중국, 일본 등에 단일경영체제를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양상권을 장악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장보고는 9세기 초에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기록이 매우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 해양활동을 경원하는 풍조가 강했기 때문에 장보고는 한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었다. 다행히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에서 장보고에 관한 연구가 계속 실시됨으로써 장보고의 역사적 위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장보고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아시아 해상무역 장악’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따라서 그의 위대한 활동에 대해 ‘동방의 해상왕’, ‘상업제국의 군주’, ‘천고의 위인’ 등과 같은 현란한 용어로 극찬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장보고를 재조명하는 논문들과 저서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장보고 정신’을 재현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발표된 논문들은 9세기 초의 장보고관련 기록들을 상황적으로 보완하는 접근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장보고 해상활동의 내용들을 충실히 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보고가 어떻게 하여 해상활동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장보고의 위대한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색다른 각도에서 격찬하는 수준이었을 뿐, 장보고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처럼 성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재현해야 할 ‘장보고정신’의 내용도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장보고의 동아시아 장악’이라는 결과만 계속 선포되고 있을 뿐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착수되었다. 첫째, ‘장보고가 성공한 이유’, 즉 ‘장보고의 성공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그가 오늘의 후손에게 남겨준 진정한 교훈을 재조명하고 해양개척의 ‘장보고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둘째,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재조명하는 데 관련되는 부분을 범위로 삼는다. 현시점에서의 재조명이 주된 목적이므로 새로운 기록이나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지양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 새로이 추가되는 활동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훗날에 이 연구의 성과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규명해온 선배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장보고가 그의 해상활동에 활용했던 그 당시의 배경과 장보고 자신의 출신배경 및 당나라 체류경험, 장보고의 해상활동내용, 그리고 장보고에 대한 기존 연구평가의 문제점 도출, 장보고 해상활동의 성과 및 성공요인과 시사점, 향후 해양사상 고취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데 있어서는 문헌조사가 활용되었고,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문헌내용들을 근거로 장보고 해상활동을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기록을 보완하고 연결하였던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장보

고의 활동내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체제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다만 장보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기존 문헌들이 주장했던 서로 다른 견해들은 가설로 설정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는 해양수산부가 1998년 12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

## 제2장 장보고 해상활동의 시대적 배경

### 1. 장보고관련 역사적 사료의 특징

장보고에 관한 기록을 담은 역사적 기본사료는 중국사료(樊川文集, 新唐書), 일본사료(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한국사료(三國史記, 三國遺事) 등 세 가지 계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장보고 관련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역사적 사료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사료의 핵심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 1) 한국사료의 특징

신라시대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김부식(1075~1151)의 「三國史記(1145)」와 일연(1206~89)의 「三國遺事」가 원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는 장보고 시대로부터 300~400년 후에 쓰여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기록을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2차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료는 장보고의 활동 내용 중 해상교역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주로 신라왕실과 장보고의 정치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즉 장보고가 당으로부터 귀국하여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고, 신무왕의 추대에 가담하여 성공하였으나, 외척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자 그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염장의 모략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하는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 사료에서 장보고는 “弓福(삼국사기의 신라본기)”, 혹은 “弓巴(삼국유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姓氏와 출신내력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료가 장보고에 대한 출신내력을 밝히지 않은 점, 성씨를 생략한 점, 해상활동 내역을 생략한 채 신라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활동만 기록한 점 등으로 인해 후대에 장보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고려왕조의 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현존하는 장보고에 대한 기록 중 최초의 것(三國史記)이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왕족이 신라의 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편찬된 역사서이다. 따라서 신라 왕위 계승에 간여한 장보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고려의 태조 王建은 장보고와 마찬가지로 해상세력<sup>1)</sup>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해상세력으로서 동아시아를 제패한 장보고와 왕건이 서로 대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2) 중국사료의 특징

장보고를 다룬 중국사료는 당의 시인 杜牧이 쓴 「樊川文集」 제6권의 「張保皋・鄭年傳」이 최초의 것이다. 이 전기는 장보고와 정년의 용맹성, 됃됨이, 성격,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당 체류시절 활약상, 귀국 후 청해진 활동 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杜牧은 9세기 중엽의 인물이며 장보고와는 거의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쓴 장보고 전기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신뢰성이 지극히 높다. 두목이 쓴 장보고와 정년의 전기는 거의 그대로 「新唐書」의 新羅傳과 「三國史記」의 弓福傳에 인용되었다.

당의 시인으로서 이름 높은 두목<sup>2)</sup>이 그의 전기를 썼다는 것은 장보고가 당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국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두목의 전기에 나타난 장보고와 정년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신라인이고, 장보고는 정년보다 10살 위이며, 두 사람 모두 용맹이 무쌍하였으나 정년의 용맹이 다소 뛰어난 반면 장보고는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 1) 왕건은 송악(개성)지방의 豪族 출신였으며, 그의 조부인 作帝建은 송악을 근거지로 한 해상무역 활동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음. 왕건은 개성, 溟江鎮(平山), 穴口鎮(江華) 등과 같은 신라의 변경에 설치된 軍鎮의 무력을 배경으로 사회적 진출을 도모하였음. 특히 혈구진을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 궁예(弓裔)의 부장으로서 왕건은 西南海 방면으로 진격하여 錦城(羅州), 珍島 등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음(이기백, 「韓國史新論」, 일조각, 1978. p.117, p.122).
- 2) 杜牧(802~853) 당말기의 대표적인 시인. 두목과 구별하기 위해 소두라고도 함. 당 중기의 명재상 두우를 조부로 하는 명가의 출신이나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지방관의 생활이 많았음(石井正敏, 「円仁と張宝高-入唐日本人と新羅人」, 「図説 人物海の日本史Ⅰ 海上の道と古代人」 毎日經濟新聞社, 昭和54年6月1日 發行, p.122).

「...신라인 장보고와 정년이라고 하는 자는 당의 서주에 와서 군의 증소장이 되었다. 장보고는 30세이고 정년은 그것보다 10세 정도 적었다. 두 사람은 전투기술이 우수하며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신라국내 및 서주에 있어서 적수가 없었다. 정년은 또한 水中에 오랫동안 잠수하는 특기가 있었다. 두 사람은 용감함을 경쟁하지만, 장보고는 정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장보고는 연장자인 것을 이유로 정년은 무예에 뛰어남을 이유로 서로 상대의 下風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

이 전기에서 두목은 安史의 亂 토벌에서 사적인 원한을 버리고 협력하여 공적을 세운 靑자의<sup>3)</sup>와 이광필<sup>4)</sup>에 대해서 서술하고 장보고·정년의 관계를 여기에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벌인 정년을 청해진으로 기쁘게 맞이한 장보고를 靑자의에 필적할 만한 현자로 평가하였다.

### 3) 일본사료의 특징

장보고에 대해 기록을 남긴 일본사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 円仁(慈覺大師)의 「入唐求法巡禮行記(847)」와 「續日本後紀(869)」가 이에 해당된다. 일본사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보고의 해상교역 활동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두목의 전기가 주로 장보고의 무용과 도량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료의 또 다른 특징은 張保臯를 “張寶高”라는 글자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円仁(794~864)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구축한 지 10년 후인 838년부터 847년까지 9년 6개월 동안 당나라에서 구법여행을 한 승려이다. 그의 구법여행은 唐조정으로부터 거부되었으나 장보고의 영향권하에 있는 在唐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 円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sup>5)</sup>는 일기체

3) 郭子儀(697~781) : 당의 명장. 하남성 사람. 755년에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이광필과 함께 적군과 싸워 장안·낙양을 되찾아 제1공신이 됨(石井正敏, 전게서, p.123).

4) 李光弼(708~764) : 당의 무장. 상주(요녕성 조양현) 사람. 안사의 난에 있어서는 靑자의와 함께 반란군사 토벌에 활약하였음. 두목의 장보고전에는 이임희라고 기록되어 있음(石井正敏, 전게서, p.123).

5) 円仁의 일기. 전4권. 승화5년(838) 하카다를 출발하여 입당하고 나서부터 동 14년 귀국하기까지의 것임. 견당사 일행의 상황, 당의 불교, 정치, 제도, 풍속, 재당 신라인의 상황, 그 밖에 흥미있는 내용이 많음. 현장의 「대당서역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3

로 쓰여진 당나라 求法旅行記로 在唐 신라인들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円仁 역시 杜牧과 마찬가지로 장보고와 같은 시기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재당 신라인들의 직접적인 도움하에 당나라 여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기록은 장보고와 재당 신라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료라 평가될 수 있다.

## 2. 장보고 활동의 시대적 배경

장보고의 국제적인 해상무역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신라 사회상은 물론 장보고 해상무역활동이 미친 당나라와 일본의 상황 특히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에 대한 시대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보고 시대의 해상무역의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당 신라인들(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민들)의 역사적 배경과 위상,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산동반도 지배와 신라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도당유민

고구려, 백제, 신라의 끊임없는 영토분쟁은 668년 신라에 의해서 종식되고 통일신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3국 통일은 당나라와 연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에 진격한 당군은 상당수의 사람들을 압송해갔다. 「新·舊 唐書」의 백제본기에 의하면, 신라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소정방(蘇定方)은 공주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660), 백제 의자왕의 태자 융(隆)과 왕자 효인(孝仁) 및 장수 58명을 압송해갔으며, 이 때 12,807명의 백제유민도 서주(徐州: 江蘇省)와 연주(兗州: 山東省)로 끌려갔다.<sup>6)</sup> 당은 백제 태자 융을 다시 보내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였으나 671년에 신라가 웅진도독을 공격하여 격퇴시켰기 때문에 웅진도독부는 백제땅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자치통감(권202)의 의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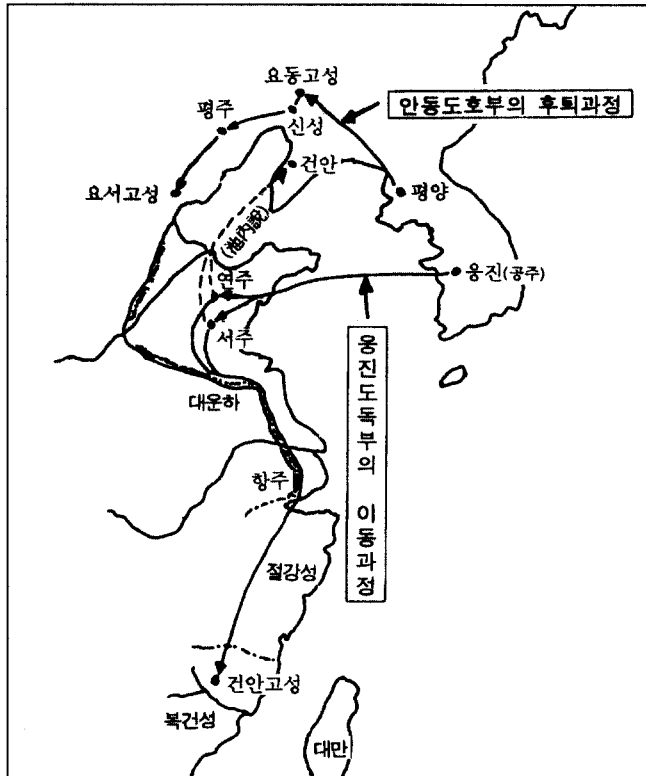
대 여행기로 불리워짐(석정정민, 전게서, p.113).

6) 김성호, 전게서, p.340.

원년(676) 2월조에 의하면 웅진도독부가 건안고성(建安故城)으로 옮겨졌으며 이 때 서주와 연주로 압송되었던 백제유민들도 모두 건안으로 이주되었다(김성호, 1996)(〈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의 이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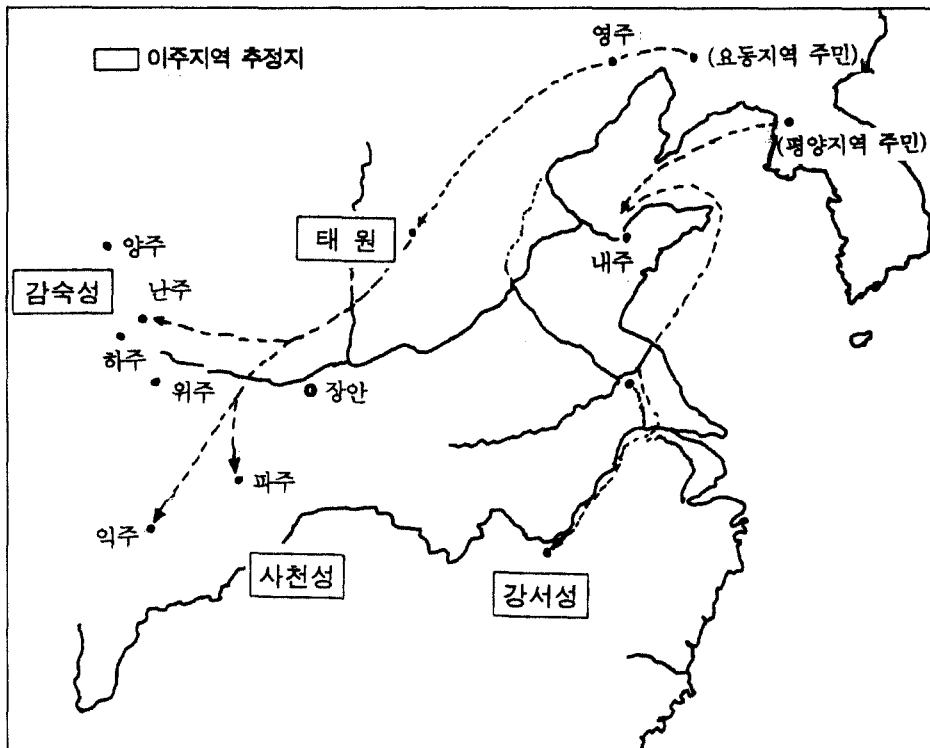
자료 : 김성호, 「중국진출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도서출판 맑은소리, 1996. p.347.

또한 당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지만(668),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으로 도호부를 요동고성(遼東故城)으로 옮기고(676), 이를 다시 新城으로 옮긴(677) 후 平州를 거쳐(714), 요서고성(遼西故城)으로 이동시켰다가(743), 757년에는 아예 폐쇄하였다(김성호, 1996). 그리고 안동도호부가 고구려땅에서 철수할 때 압송해간 고구려인 수가 장수

를 포함하여 20여만이라는 기록이 신라본기에 나타난다. 당나라가 압송해 간 고구려유민의 이동과정은 구당서와 자치통감 등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바, 당은 고구려 유민을 산둥반도의 내주(萊州)와 요서지방의 영주(營州)로 나누어 이동시킨 후 장희이남(江淮以南), 산남(山南), 병주(并州), 경서제주(京西諸州) 등으로 분산 이동시켰다(<그림 II-2> 참조).

&lt;그림 II-2&gt;

고구려유민의 이동경로와 정착지



자료 : 김성호, 전개서, p.352.

이상과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의 개입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에 의해 압송되어진 백제유민과 고구려유민이 상당한 수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유민들과 그 후손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재당 신라인 세력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신라사회의 모순과 도당유민

당으로 건너간 유민은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뿐만이 아니고 신라에서 건너간 유민도 상당한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도당 유민이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신라 사회의 근간이었던 계급사회의 모순에 의해 해외로 이주하는 유민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골품제도(骨品制度)에 의한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계급은 출세의 기준이었고, 의식주의 기준이었으며 신분의 증표였다. 평민은 촌(村)에 거주하였고 노비적(奴婢的) 신분을 가진 천민(賤民)은 향(鄉)·소(所)·부곡(部曲)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계급사회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했던 육두품 이하의 신라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당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골품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당나라처럼 ‘과거제에 의한 인재 등용’을 골자로 한 10여조의 ‘時務策’을 건의했던 최치원(崔致遠)도 ‘유자이건, 불자이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앞을 다투어 입당하였다’라고 했다.<sup>7)</sup> 특히 신라의 사회가 안정을 누리던 8세기 중반 경덕왕대(景德王代)에는 귀족들의 사치생활이 극에 달했으며 재상가(宰相家)에는 노비(奴婢)가 3천인에 달했을 정도이다.<sup>8)</sup> 귀족의 중심지였던金城(慶州)의城中에는 17만 8,936戶가 있었는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으며 노랫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귀족의 이러한 생활이 심화될수록 평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졌으며 “통일 이후부터는 민중의 생활이 점점 가난해져 노비가 되는 사례가 늘어갔다”(이기백, 1978). 이처럼 귀족들의 사치와 전횡, 그리고 평민과 천민들의 악화되는 생활여건이 극렬하게 대비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지식과 학문적으로 신라사회를 지탱하던 육두품 계층들의 고뇌가 심하였고, 마침내는 관직을 버리고 유랑생활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치원도 유랑자대열에 끼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신라인들은 문무의 능력에 따라 출세가 가능했던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었다.

당으로 건너가는 신라유민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신라 전제군주제의 붕괴와 평민들의 격심한 생활고를 들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100

7) 金文經, 「張保皋 研究」, 도서출판 淵鏡文化社, 1997. p.25.

8) 이기백, 전계서, p.96.

년 동안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8세기 중반인 경덕왕 때에는 전제군주제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이 때부터 신라사회는 진골 계급에 의해 유지되어 온 왕통이 무너지고 귀족들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 호족들이 세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역사적 발전의 중심을 잃어가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惠恭王 4년(768)에 일어난 대공(大恭)의 난(亂)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공의 난은 전국 각 곳의 96각간(角干)<sup>9)</sup>이 3년간이나 서로 싸운 대란이었다. 이 대란으로 혜공왕이 살해당했으며(780), 전쟁이 계속됨으로써 왕의 재임기간이 크게 짧아졌다. 이와 같은 전쟁은 전제군주제에 대한 귀족들의 저항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귀족들은 전제왕권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귀족 상호간의 세력다툼도 지속하였다. 따라서 귀족들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 사방으로 흘러다니는 천민이나 유랑민을 모집하여 사병을 조직하였고, 이러한 무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민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따라서 평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토호들로부터 이중으로 수탈당해야 했다.

유민발생의 또 다른 이유는 8세기 중반이후 계속된 격심한 기근이었다. 삼국사기(권10)의 기록에는 원성왕 2년(786)에 기근이 심하여 곡식 96,000여 석을 나누어 준 것으로 나타난다.<sup>10)</sup>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 메뚜기 때의 피해 등으로 흉년이 계속되어 식량이 부족하자 도적의 무리가 크게 증가하였고 유랑자도 늘었다.

이상과 같이 농사의 흉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토호들로부터 이중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게된 신라인들은 식량이 크게 부족하였고 굶는 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신라의 평민들은 자식을 노비로 팔거나 도적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랑민의 일부는 생활고 해결을 위해 일본이나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었다.

### 3) 재당 신라인의 활동과 위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보고가 입당하여 활동하기 이전에 당나라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민들이 살고 있었으며, 노예로 납치

9) 신라관직의 17 관등(官等) 중 최상위 등급인 이벌찬(伊伐漣)임.

10) 金文經, 전제서, p.25.

되거나 팔려온 사람, 유학생, 구법승, 군인, 상인, 선원, 농민 등 각계 각층의 신분으로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통틀어서 在唐 新羅人이라 불리며 당 나라를 여행한 일본 승려가 쓴 일기를 통해 자세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당 신라인들은 장보고의 입당후 활동과 청해진 설치 후 해상무역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円仁의 입당 여행내용, 재당 신라인들의 실상 등에 대해 살펴본다.

### (1) 円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대한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구법승<sup>11)</sup> 円仁은 당나라 구법여행시 견문 내용을 일기로 남겼다. 838년 6월 13일에 일본의 하카다(현재의 후쿠오카)를 출발하여 중국의 해능→양주→적산→오대산→장안→적산→초주→박전 등으로 이어지는 여행을 마치고 847년 12월 14일 다시 하카다로 돌아왔다(<표 II-1>, <그림 II-3> 참조).

円仁이 당나라 여행을 시작한 시기는 장보고가 당으로부터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828)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기이다. 따라서 円仁이 당나라에서 만나거나 도움을 받았던 신라인들은 대부분이 장보고의 통솔내지 영향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의 단적인 증거는 円仁이 입당하기 위해 일본을 출발할 당시 축전태수의 편지(항해중 분실)를 소지하였다는 점과 円仁이 오대산으로 출발하기 전 적산의 법화원 체류시 장보고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다.<sup>12)</sup> 축전태수가 円仁편을 이용하여 장보고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장보고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일본의 삼국에 걸쳐서 활약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저명한 국제적 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며, 재당 신라인 사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sup>13)</sup>을 말해준다. 그리고 円仁이 법화원에서

11) 엔닌의 당나라 여행자격은 원래 구법승이 아니라 請益僧이었음. 청익승은 還學僧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속인의 請益生과 같은 자격임. 즉 어떤 분야의 특수한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단기 유학생이라 할 수 있음. 円仁은 일본의 遣唐使를 수행하여 입국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승(생)과 달리 견당사 일행과 함께 귀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격이었음(石井正敏, 전계서, p.113).

12) 申福龍 번역·주해,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pp.133~134 및 石井正敏, 전계서, 1991. pp.113~114.

장보고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도움받은 사실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여행후 귀국길에 청해진을 방문하여 만나고 싶다는 요지이다.

&lt;표 Ⅱ-1&gt;

円仁 일기의 구성과 신라인에 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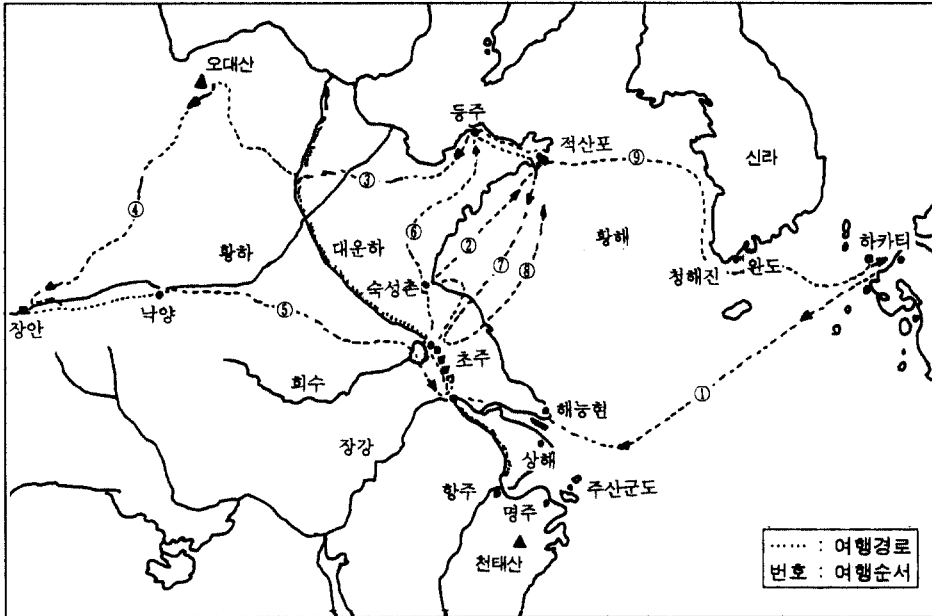
| 여 로         | 소요기간                | 기 간<br>(연/월/일) | 전 체<br>기록수 | 신라<br>관계 | 노 편   |
|-------------|---------------------|----------------|------------|----------|-------|
| 1. 하카타 → 해능 | 838. 6.13~838. 7. 2 | 20             | 9          | 1        | 해로    |
| 2. 해능 → 양주  | 838. 7. 3~838. 7.25 | 23             | 14         | -        | 운하    |
| 3. 양주(체류)   | 838. 7.26~839. 2.21 | 6/25           | 94         | 4        | -     |
| 4. 양주 → 적산  | 839. 2.21~839. 6. 7 | 3/15           | 81         | 19       | 운하·해로 |
| 5. 적산(체류)   | 839. 6. 8~840. 2.19 | 8/11           | 50         | 22       | -     |
| 6. 적산 → 오대산 | 840. 2.20~840. 4.28 | 4/8            | 49         | 2        | 육로    |
| 7. 오대산(체류)  | 840. 4.29~840. 7. 6 | 2/8            | 45         | -        | -     |
| 8. 오대산 → 장안 | 840. 7. 7~840. 8.20 | 1/13           | 37         | -        | 육로    |
| 9. 장안(체류)   | 840. 8.21~845. 5.16 | 4/8/24         | 18         | 7        | -     |
| 10. 장안 → 적산 | 845. 5.17~845. 8.27 | 3/10           | 28         | 8        | 육로    |
| 11. 적산(체류)  | 845. 8.28~847. 3.12 | 1/6/14         | 20         | 13       | -     |
| 12. 적산 ↔ 초주 | 847. 3.13~847. 9. 2 | 5/19           | 26         | 11       | 해로·운하 |
| 13. 적산 → 박전 | 847. 9. 3~847. 9.18 | 16             | 11         | 2        | 해로    |
| 14. 하카타     | 847. 9.19~847.12.14 | 2/25           | 13         | 3        | -     |
| 계           | 838. 6.13~847.12.14 | 9/6/1          | 595        | 92       | -     |

자료 : 김성호, 전게서, p.26.

13) 石井正敏, 전게서, p.114.

&lt;그림 II-3&gt;

## 円仁의 당나라 구법여행 경로



자료 : 김성호, 전게서, p.27.

円仁의 일기 내용을 분류해보면, 9년 6개월동안 기록한 595건 가운데 신라 관련 기록이 92건이나 등장한다. 그리고 円仁의 기록에는 일본 사람이나 당나라 사람보다도 신라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며 등장 인물의 절반 이상이 신라인이다(김문경, 1997). 위에 열거한 円仁의 많은 여행지 중 신라관계 기록이 없는 것은 오대산 체류동안의 기록뿐이다. 그리고 여행을 위한 이동시에도 신라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해능에서 양주로 이동하는 동안과 오대산에서 장안으로 이동하는 동안뿐이다. 또한 円仁의 이동수단은 주로 해로와 수로(운하)였으며 육로는 적산→오대산→장안→적산의 이동과정에서만 이용되었다.

円仁의 행적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円仁의 여행은 전적으로 재당 신라인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같은 이국인인 재당신라인들의 원조가 없었던들 円仁의 구법여행은 실현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石井正敏, 1979). 둘째로는 <그림 II-3>에 나타난 円仁의 광범위한 여행지에 신라인들이 살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재당 신라인들이 중국의 연해지역과 내륙 수로 및 운하지역에 많이 살고 있으면서 상업, 무역, 운송 특히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円仁의 일기에 등장하는 14명의 해상무역상 중 12명이 재당 신라인이었다(김성호, 1996). 넷째로는 신라인들이 상당한 자치적 위상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위의 기록분석에 숫자로 나타난 것은 아니나 円仁 일기의 내용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일본의 견당사와 함께 돌아가야 할 청익승이었기 때문에 당조정은 円仁의 장기 여행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재당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円仁은 당 조정으로부터 구법승의 허가를 획득하고 9년 동안이나 여행을 하게 된다.

## (2) 재당 신라인의 분포와 위상

앞서 円仁의 기록에 대한 숫자 및 내용분석의 결과로 이미 드러났듯이 당나라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민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중국의 국내 水運交易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아시아 海上交易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중국의 물자보급망을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재당 신라인들은 당조정으로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당조정에 반기를 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自治體制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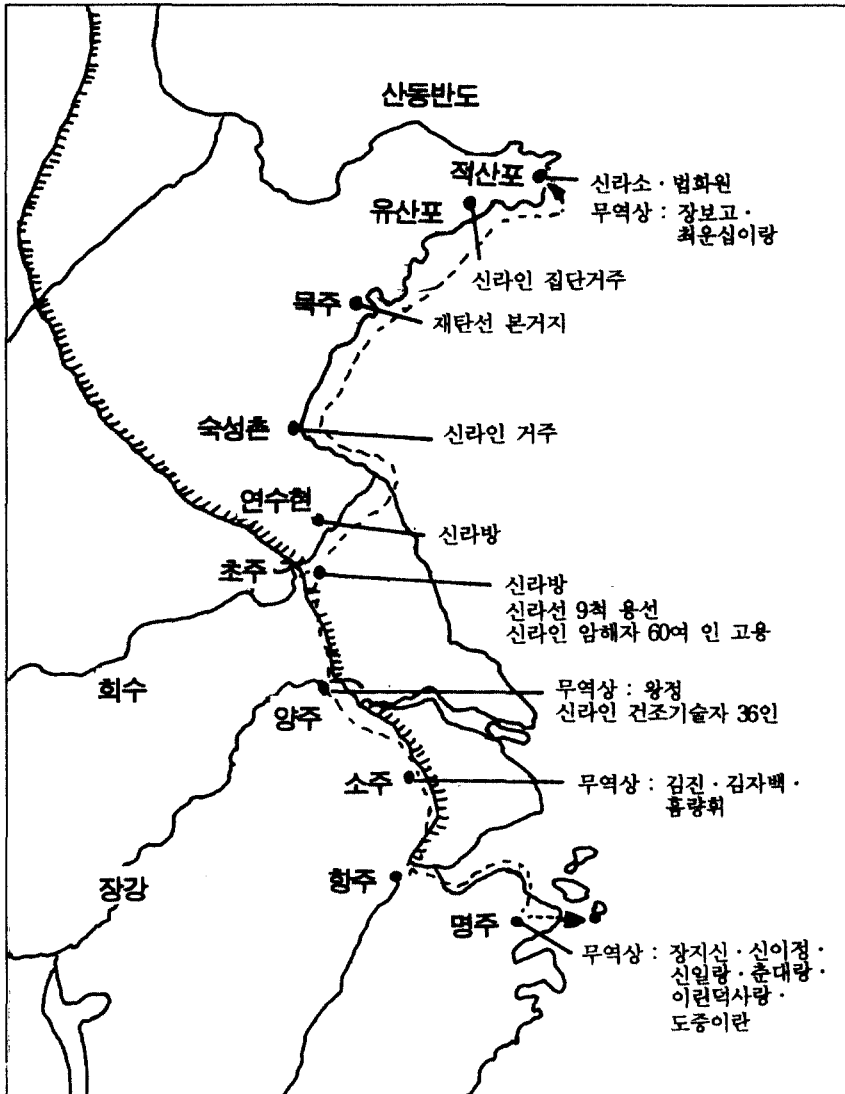
円仁의 일기를 포함하여 그 동안에 알려진 사료 및 연구자료에 의하면, 재당 신라인들은 산둥반도의 문동현 적산포에서부터 아래로 절강성의 명주 일대에 이르는 연해지역 및 내륙 운하주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sup>14)</sup>(〈그림 II-4〉 참조).

円仁이 처음으로 도착하여 머문 곳이 양주(揚州)이다. 양주는 양자강 하류 일대이자 대운하 연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대로서 당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국제통상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신라인을 포함하여 파사국(波斯國, 페르시아), 점파국(占婆國, 인도차이나의 나라), 대식국(大食國, 아랍제국) 등의 상인들이 거류하던 곳이었다(김문경, 1997). 円仁은 이 양주에 체류하는 동안 신라인 무역상 왕정(王靖)을 만난다. 왕정은 819년

14) 김문경, 전계서 및 김성호, 전계서 참조.

&lt;그림 II-4&gt;

## 제당 신라인들의 밀집 거주지 분포



자료: 김성호, 전개서, p.47.

(원화14년, 헌덕왕 11년) 당나라 무역상 장각제(張覺濟)와 함께 교역을 목적으로 항해하다가 풍랑으로 일본의 데와에 포류한 후 나가토를 거쳐 귀환한

양주 거주의 국제무역상이었다. 円仁은 또 회창6년(846년) 일본 정부가 파견한 ‘円仁수색대’의 성해스님의 서찰을 받아본 것도 양주 거주 신라인 무역상 왕종(王宗)을 통해서였다. 이밖에도 양주의 신라인에 대해서는 주경현의 「唐朝名畫錄」에 신라 상인들이 수십점의 그림들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간 것으로 나타난다.

또다른 신라인 거주지로는 대운하주변지역이다. 특히 신라인들의 중심적 거주지는 강소성의 초주(楚州)와 연수향(漣水鄉)이며 이곳의 신라인 거주지를 ‘신라방’이라 하였다. 이곳에는 신라인 관련사무를 전담하는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가 설치되어 총관이 행정을 관장하고 전지관(사무전담관)과 역어(통역관) 등의 관리가 있었다. 円仁은 이곳에서 신라방 총관 설전과 역어 유신언을 만나고, 일본조공사 일행이 동역관 김정남을 통하여 9척의 신라선을 용선하여 60명의 신라선원을 승선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円仁은 산동반도의 적산포에 있는 법화원에서 그의 총 여행기간인 9년 6개월 중 2년 7개월가량을 체류하게 된다. 이 곳에서 円仁은 장보고의 청해진 휘하에 있는 최운십이랑을 만나 장보고에게 쓴 편지를 건네주기도 한다.

#### 4)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산동지배

고구려 유민의 후예인 이정기(李正己)<sup>15)</sup>는 평노치청사의 절도사로서 산동 지방을 지배한 인물이며, 당나라에 대항하여 산동지방의 지배권을 방어하려 했다. 이정기 일가는 결국에는 장보고가 참여한 무녕군에 의해 멸망되었으나, 산동반도를 지배하는 동안 신라와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일족이므로 여기서 간략히 살펴본다.

##### (1) 평노치청절도사의 중요성

安史의 亂 이후 당에서는 난의 평정에 힘쓴 지방 절도사들이 점차 영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소위 하북 3번진(위박, 성덕, 노용)이 그 대표이며, 평노치청절도사(平盧淄青節度使) 이정기도 영향력을 강화하여 당 조정에 대항한

15) 평노지방의 영주(營州 : 지금의 요녕성 조양) 출신으로 본명은 희옥(懷玉)임.

사람이었다. 평노치청절도사는 영주를 회부(치소)로 하며, 조·한·치·청·등·제·래·열·해·절·밀의 11주를 관장하는 산둥반도에 위치한 번진이다. 이 번진은 신라와는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관계로 대대로 신라와 발해를 다스리는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 직책은 신라와 발해에 대한 외교와 섬외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단지 지리상으로 가까워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신라와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번진이었다.<sup>16)</sup>

## (2) 이정기 일가의 산둥반도 지배

이정기는 원래는 평노군의 일개 병졸에 지나지 않았으나, 영태원년(765년)에 평노치청절도사이며 의형이었던 후희일에게서 마침내 자립하여 조정으로부터 평노치청절도겸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로 임명되었다. 절도사가 된 후 이정기는 세력을 확장하여 하남도(지금의 산둥반도) 일원의 15개 주를 관장하면서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하북삼진 중 최대의 번진인 노용이 9개주를 관장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이정기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통감에는 이웃 번진들이 모두 이정기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김문경, 1977). 특히 「구당서」의 “이정기전”에 의하면, 당시 강희지방은 거대한 곡창지대로서 당조정에 있어서는 목숨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곳이었으나 이정기가 운하의 요충을 점령하여 조정에 대한 물자공급로를 차단한 것은 당조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이정기의 평노치청절도사 자리는 아들 이납, 남의 아들 사고, 사도에게 계속 세습되었기 때문에 이정기 일가는 55년 동안이나 산둥반도 일대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즉 이정기 일가는 산둥반도 일대에 ‘소왕국’을 건설했다고도 평가될 만하였다(김문경, 1997).

## (3) 당조정의 평노군 토벌과 장보고의 등장

이정기의 손자 이사도가 번수직을 세습할 무렵에 즉위한 당의 헌종(憲宗 ;

16) 김문경, 전계서 및 蒲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臯の擡頭と反亂” 「朝鮮史の發展と國際的契機」,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제16집, 1979.

806~820)이 영향력을 키워가던 변진들에 대해 대대적인 토벌을 시작하자 이정기 일가의 평노치청사와 당조정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헌종의 이러한 강경책은 즉각 강변연합의 반격을 초래함으로써 무력이 큰 지방절도사들과 당조정간의 혼란상태가 시작되었고, 평노치청절도사인 이사도(정기의 손자) 역시 적극적인 반격을 가하게 된다. 「구당서」의 “이사도전”에 의하면, 이사도는 낙양에서 장안방면으로 통하는 운하상의 중요한 저장고인 하음창을 불태우고, 건릉교를 절단하고, 伊闕을 불태우는 등 강력한 저항을 보였다고 되어 있다(포생경자, 1979).

한편 당의 평노군토벌에는 무녕군이 선봉을 담당하였으며 무녕군은 대대적으로 평노군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무녕군에는 신라로부터 입당한 장보고와 정년이 참여하고 있었다. 결국 당의 이사도 토벌전은 무녕군과 평노군의 대결이었으며 원화 14년(819)에 이사도는 부하 유오의 반역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이정기 일가의 55년에 걸친 산동반도지배가 끝을 보게 된다. 평노군의 토벌에 공을 세운 무녕군의 왕지홍은 무녕군 절도사로 임명되고 장보고는 무녕군 중소장이 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덕왕 11년(819)조의 기록을 보면, 당의 헌종이 이사도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신라조정에 원병을 청하였고, 신라는 순천장군(順天將軍) 김웅원(金雄元)을 원군사령관으로 하는 3만의 군사를 파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김문경, 1997).

#### (4) 이정기 일가와 신라의 관계

앞서 주지된 바와 같이 이정기의 평노치청절도사는 발해와 신라에 대한 당의 외교관계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정기 일가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 건국되었으며,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따라서 당조정에 대항하는 이정기 일가의 신라에 대한 관계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될 수 있는 일이다.

당의 건국(618)이후 신라의 삼국통일(668) 때까지 48년간 당과 신라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34회에 이르고, 양국의 국력이 강건하던 당 개원원년(713)부터 10년간에는 양국의 공식교류가 9회나 된다. 그리고 이정기가 절도사로

취임하여 당조정에 협조적이던 초기 13년간(765~777)에도 양국의 교류가 13회나 된다(김문경, 1997). 그러나 이정기일가와 당조정간에 대립이 시작된 778년 이후 장보고가 청해진대사로 취임한 828년까지의 51년간에는 양국 교류가 총 7회에 불과하였다(<표 II-2> 참조). 이처럼 거의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당과 신라간의 교류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정기 일가의 산동반도 지배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과 신라의 교류관계가 거의 단절된 반면에 이 시기에는 신라인을 납치하여 노비로 매매하는 해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당과 신라의 조정에서도 이러한 노비매매 행위를 금지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과 신라간의 외교 및 교류관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거절했을 법한 평노치청절도사가 이러한 해적 및 노비매매 행위에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당조정에 무력으로 대항하던 평노군은 막대한 군비가 필요했을 것인바, 마필은 발해로부터 구입하고, 군비는 사무역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노비매매가 이러한 사무역의 일환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포생경자, 1979).

<표 II-2>      **이정기의 산동반도 지배와 나당 교류상황(765~838년)**

| 연 도     | 기 간 | 조공횟수 | 주요사건                      |
|---------|-----|------|---------------------------|
| 765~777 | 13년 | 13회  | 이정기, 평노치청절도사로 임명됨         |
| 778~806 | 29년 | 3회   | 이씨의 반당조활동의 활발화            |
| 807~819 | 13년 | 4회   | 헌종즉위<br>강변토벌개시            |
| 820~828 | 9년  | 2회   | 이사도의 난-이씨의 멸망             |
| 829~838 | 10년 | 6회   | 장보고, 청해진대사로 임명됨<br>신무왕 즉위 |

자료 : 책부원귀, 포생경자(1979)에서 재인용.

### 3. 장보고의 출신배경과 당나라 체험

#### 1) 장보고의 출신배경(네 가지 가설)

장보고의 출생내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기록이 없다.<sup>17)</sup> 따라서 장보고의 출신에 대해서는 추측의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정은 대개 네 가지로 압축된다(<표 Ⅱ-3> 참조). 우선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설로서 장보고는 섬(완도)에서 태어난 천민출신이라는 것이다. 즉 장보고는 해도인(海島人)이며 구체적 출생지역은 청해진이 위치한 지금의 완도읍 장좌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표 Ⅱ-3>

장보고의 출신배경에 대한 가설

| 출신배경에 대한 가설             | 주 장 자                 | 비 고                                                                                                                    |
|-------------------------|-----------------------|------------------------------------------------------------------------------------------------------------------------|
| - 해도인(완도), 천민출신         | - 국내외 대부분의 학자         | - 출신내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완도 출신의 천민일 것임                                                                                      |
| - 중국 소주출신 백익의 아들, 어부출신  | - 인동장씨대동보<br>- 장씨연원보감 | - 백익은 신라에 귀화한 중국인                                                                                                      |
| - 완도를 고향으로 하는 호족(성주) 출신 | - 이기백                 | - 통일신라에는 지방호족이 대두하여 해상무역에 많이 진출하였음<br>- 정쟁 등으로 지방호족은 진골, 육두품, 시골촌주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음<br>- 보고는 완도에 군진을 설치하여 사병을 양성한 호족출신일 것임 |
| - 중국 연수현 출신의 재당 신라인     | - 김성호                 | - 청해진 대사의 “대사”는 중국의 관직임                                                                                                |

두번째의 가설은 仁同張氏大同譜나 張氏淵源寶鑑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장보고는 완도읍 장좌리에서 어부생활을 하던 白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백익은 중국 절강성 소주부 용흥촌 출신의 중국사람이고, 몇 차례 신라와 당을 왕래하다가 신라에 귀화하여 청해진에 정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17) 「삼국사기 권34 장보고·정년전」에는 장보고가 신라인이라는 것외에는 출생내력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음(金文經, 「張保臯 研究」, 연경문화사, 1997. 11. p.19).

즉 장보고는 중국인의 후예이며 어부출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족보상 조상의 출신이 중국으로 표기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김문경, 1997).

세번째 가설로는 장보고가 지방호족 출신이라는 것이다.<sup>18)</sup> 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지방호족들이 크게 성장하여 지방에 군진을 설치하거나 성을 쌓아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해상무역을 크게 일으켰는데, 장보고도 완도를 중심으로 군진(청해진)을 설치하여 사병을 양성한 호족의 후예라는 것이다. 이 시대의 지방호족들은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교역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진골, 육두품, 촌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네번째 가설로는 장보고가 중국 연수현 출신의 재당 신라인이라는 주장이다.<sup>19)</sup> 장보고에 붙여진 청해진대사의 ‘대사’라는 명칭이 신라의 관직이 아니고 중국의 관직이라는 논거에서 제기되는 가설이다. 즉 장보고는 중국의 대사자격으로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해진도 중국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장보고 출생시기에 관해서 장씨대동보에는 신라 애장왕 2년(801)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보고가 당나라 무녕군에서 군중소장에 임명되던 819년에 나이 30세였다는 점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장보고의 출생시기는 787~789년경으로 추정된다<sup>20)</sup>(〈표 II-4〉 참조).

그리고 장보고의 姓과 名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선 三國史記에는 장보고의 이름이 “弓福”으로 표기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弓巴”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張保臯”라는 성명은 당나라의 시인 杜牧(803~852)이 張保臯와 鄭年에 대해 쓴 傳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보고의 張氏 성은 장보고가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사용한 것이며, “保臯”라는 이름도 “福”을 음절순으로 표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김문경, 1997). 신라시대는 엄격한 골품제사회였기 때문에 성골과 진골가문이 아닌 평민들은 성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당나라에서는 일반인들도 성씨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장보고가 당으로 건너간 이후에 張氏 姓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18) 이기백, 전제서, pp.116~119.

19) 김성호, 전제서, pp.148~204.

20) 김문경, 전제서, p.25.

&lt;표 II-4&gt;

## 장보고 관련 주요 연대기

| 연 도     | 주요 내용                                                                                       | 비 고                                         |
|---------|---------------------------------------------------------------------------------------------|---------------------------------------------|
| 618     | - 당 건국                                                                                      |                                             |
| 668     | - 신라의 삼국통일                                                                                  |                                             |
| 765     | -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平盧淄靑 藩鎮 구축                                                                    |                                             |
| 787~789 | - 장보고의 출생                                                                                   | - 인동장씨 대동보에는 신라 애장왕2년(801)에 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 812~814 | - 장보고, 鄭年과 함께 당에 입국, 무녕군 군졸이 됨                                                              |                                             |
| 819     | - 평노치청군이 무녕군에 의해 토벌됨<br>- 장보고, 평노치청 토벌의 공으로 무녕군의 軍中小將에 임명됨(30세)                             | - 무녕군은 당헌종의 평노군 토벌에 선봉을 담당.                 |
| 819 이후  | - 장보고, 서주 무녕군에서 제대<br>- 장보고, 산둥성의 문등현 적산포에 법화원 창건                                           |                                             |
| 824     | - 장보고, 무역차 일본내왕                                                                             |                                             |
| 828     | - 장보고, 청해진 설치(4월)<br>- 장보고,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에 임명되고, 1만의 병사를 제공받음(39~41세)                       |                                             |
| 837     | - 김우징, 청해진으로 피신, 장보고에 의탁                                                                    |                                             |
| 838     | - 정년, 장보고 군사 5000으로 광주와 남원 공격(민애왕 1년, 3월)<br>- 정년, 염장, 장변, 락금, 장건영, 이순행 등 6장군이 김우징을 지원(12월) |                                             |
| 839     | - 신무왕 즉위, 장보고는 감의군사 제수(4월)<br>- 문성왕 즉위, 장보고는 진해장군 제수(8월)                                    |                                             |
| 842     | - 문성왕, 김양의 딸을 왕비로 책봉                                                                        |                                             |
| 845     | - 문성왕, 장보고 딸을 왕비로 책봉하려 시도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좌절                                                   | - 장보고 딸의 왕비 책봉은 장보고와 신무왕의 약속                |
| 846     | - 장보고, 閭長에 의해 피살                                                                            |                                             |
| 851     | - 청해진 해산, 주민들은 벽골제로 이주됨                                                                     |                                             |

한편 일본의 「속일본후기」나 일본 승려 円仁(円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등 일본의 기록문헌들에서는 장보고의 한자표기가 “張宝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자의 표기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구축한 후 해상무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습득한 뒤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김문경, 1997).

또한 장보고는 어린시절의 이름인 “弓福”이 시사하듯이 활을 잘 쏘았고 승마에 능했으며 용맹무쌍한 기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목의 전기에는 ‘장보고가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신라는 물론 서주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 2) 장보고의 당나라 입국시기와 그 동기(네 가지 가설)

장보고가 당나라로 건너간 것은 20대 초반의 일이며 시기적으로는 대략 812~814년 경으로 추정된다(김문경, 1997). 이 무렵은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가던 시기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668년에 삼국을 통일한 후 100여년 동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8세기 중반부터는 유례없는 가뭄 또는 홍수에 의한 기근이 지속되어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8세기 말부터는 진골간의 정쟁이 격화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지방호족들의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평민들 특히 농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호족들로부터 이중으로 징세를 당하게 되어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 당나라 또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유민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장보고의 당나라 입국동기를 이러한 유민의 일행으로 정년과 함께 입국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장보고의 입당 동기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너무 단편적이고, 또 장보고의 출신배경에 대한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부합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보고의 출신배경과 활동내용, 그리고 당시의 신라 사회상을 연결시켜 본 논리적 관점에서 장보고와 정년의 입당동기에 관한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각 가설의 가능성을 진단해본다(<표 II-5> 참조).

### ○ 제1의 가설 : 도당유민의 일원으로 입당

현재까지 장보고의 당나라 입국동기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주장이다. 즉 장보고도 먹을 것을 찾아 당나라로 건너간 신라유민의 일원으로 입당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보고가 천민출신이라 하더라도 섬출신 어부의 후예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낮은 주장이다. 즉 어민의 생활은 가뭄이나 홍수에 의한 농업의 흉작과는 비교적 관계가 적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유민의 일원으로 입당했다는 가설은 성립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용맹한 사람으로서 무녕군의 중소장이었으며 법화원을 건립하고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지배하게 된 장보고의 기개나 후일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보고의 입당 동기로는 너무 안일한 내용이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이다. 또 장보고가 해상군진을 운영한 지방호족의 후예라는 주장(이기백, 1978)을 받아들인다면 장보고가 먹을 것을 찾아 입당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다만 장보고가 내륙에서 활동하다가 몰락한 호족의 후예라면 이 가설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 ○ 제2의 가설 : 출세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입당

당나라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입당하였다는 내용이다. 용맹하고 뛰어나나 신라의 골품제하에서는 출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장벽이 낮은 당나라에서 출세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입당하였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 입당시기의 신라사회에서는 진골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지방토호들이 세력을 키우던 때이므로, 용맹이 무쌍한 장보고의 경우엔 신라에서도 무예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당동기의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장보고가 호족의 후예라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가설은 더욱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장보고가 몰락한 호족의 후예라면 이 가설의 타당성은 크게 높아진다.

### ○ 제3의 가설 : 도당유민을 수송한 후 유민의 지도자로 잔류

장보고관련 연구에서 지금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은 내용의 가설이다. 장보고가 당나라로 가려는 신라유민들을 선박으로 수송해주고 당 현지에서 유민의 지도자로 잔류하게 되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장보고의

출신배경과 해상무역활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장보고가 섬사람이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보고는 바다에 익숙하였고, 어부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선박 운항과 항해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장보고가 해상세력의 호족이라면, 해상운송 경험이 많았을 것이며 상당히 큰 선박도 보유하거나 용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재패할 수 있었던 장보고의 능력과 안목은 소년시절부터 습득되고, 경험되고, 단련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보고는 당시 해상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집안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보고는 당나라까지 항해경험이 있었거나 적어도 항해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연상된다. 이러한 장보고가 선박으로 유민들을 당까지 수송한 후, 그의 용맹과 넓은 도량 때문에 유민들의 권유로 잔류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 ○ 제4의 가설 : 신라의 당파병군 일원으로 입당

네번째 가설로는 819년 신라가 당나라 헌종 평노치청군 토벌을 돕기 위해 파병한 3만 군사 중의 일원으로 당에 가게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장보고가 지방호족의 후예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타당성이 있는 가설이다. 다만 장보고가 무녕군의 일원으로 평노군의 토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보고가 파병군의 일원이라는 가정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점만으로 이 가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평노치청군이 토벌되고 나서 장보고가 무녕군 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장보고가 무녕군의 아졸로 수년간 복무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신라의 파병군은 무녕군절도사의 휘하에서 평노군토벌의 선봉에 참가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토벌 후 무예가 뛰어난 장보고와 정년이 무녕군에 잔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장보고가 신라파병군의 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파병군을 당나라까지 수송한 후 당에 잔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장보고의 입당은 신라군의 당파병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장보고의 입당 동기 내지 계기와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네 가지 가설 중 타당성이 높은 것은 제3의 가설과 제4의 가설이라 할 수 있다.

&lt;표 II-5&gt;

## 장보고의 입당 동기에 대한 네 가지 가설

| 입당동기의<br>네 가지 가설             | 내 용                                                           | 타당성(필자의견)                                                                                                                                                                         |
|------------------------------|---------------------------------------------------------------|-----------------------------------------------------------------------------------------------------------------------------------------------------------------------------------|
| ○ 굶주림 해소                     | - 장보고와 정년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유민들에 섞여서 입당                     | - 장보고와 정년을 섬에 사는 어부의 자식이라고 전제하면, 가뭄에 의한 농사의 흉년과 어부생활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음<br>- 장보고가 호족의 후예라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짐. 단 몰락한 호족의후예 라면 가능성이 높음                                                 |
| ○ 출세의 기회 포착                  | -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장보고와 정년이 골품제의 한계를 벗어나 출세의 기회를잡기 위해 입당          | - 용맹한 사람으로서 당에 대한 동경심을 가졌을 법하나 당시 신라사회는 지방토호들이 세력을 키우던시기였으므로 무예적 출세기회 포착은 신라에서도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의문시되는 동기임<br>- 특히 장보고가 호족세력의 후예라는 가설을 인정한다면 더욱 의문시되는 동기임<br>- 단 몰락한 호족의 후예라면 가능성이 높음 |
| ○ 신라유민을 수송한 후 재당신라인의 지도자로 잔류 | - 신라유민을 당나라까지 선박으로 수송한 후, 유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당 신라인의 지도자 로 잔류        | - 장보고가 어부의 자식이라는 가설과 또는 해상세력을 가진 호족의 후예라는 가설에서 보면, 가능성이 높음<br>- 장보고와 정년의 선박 항해술이 뛰어났음을 전제하면 가능성이 높음                                                                               |
| ○ 신라의 당파병군의 일원으로 입당          | - 당 헌종의 평노군토벌을 지원하기 위해 신라가 819년에 파병한 3만군의 일원으로 입당, 평노군 토벌후 잔류 | - 장보고가 지방 호족의 후예라는 가설과 신라의 당파병을 인정한다면 가능성이 있음<br>- 그러나 장보고가 무녕군의 일원으로 평노군토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의문시됨                                                                                 |

주 : 제3의 가설과 제4의 가설은 필자가 설정한 것임.

### 3) 장보고의 당나라 군생활과 견문

장보고가 정년과 함께 입당할 무렵인 9세기 초는 당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번진(藩鎭)간에 싸움이 한창이었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복구하기 위해 지방의 이탈세력들을 토벌하려 했고, 독자적인 권위와 지배력을 행사하던 지방의 번진들은 중앙정부의 토벌전에 극렬하게 저항하던 시기이었다. 특히 당나라 중흥의 군주로 불리는 헌종(憲宗; 806~820)은 최대의 저항세력이자 고구려 유민 이정기(李正己)가 세웠던 평노치청(平盧淄靑)과 필사의 토벌전을 벌였다.

그리고 평노치청 토벌전에 선봉을 담당했던 군대가 강소성 서주(徐州)의 무녕군이었다. 그리고 장보고와 정년은 바로 이 무녕군에 들어가 활약하게 되었다. 장보고는 무녕군 절도사 이원(811~818)의 재임기에 아졸로 출발하여 평노치청의 토벌에 공을 세워 군중소장(軍中小將)이 되었다고 짐작이 된다(김문경, 1997). 아니면 두목이 쓴 장보고의 전기에서 “장보고가 싸움을 잘 하여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본국에서는 물론 서주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다”고 기술된 점으로 미루어 신라가 파병한 3만명 군졸의 일원으로 토벌전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무녕군의 군중소장으로 임명되었을 수도 있다.

평노군이 토벌된 후 장보고는 무녕군에서 제대하여 당나라의 여러 지역, 특히 산둥반도 일대를 포함한 연해지역 곳곳을 두루 돌아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재당 신라인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생활실태 특히 해상무역의 활동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신라의 소년소녀들이 노예로 매매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이다.<sup>21)</sup> 이러한 경험은 장보고로 하여금 훗날 청해진을 설치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장보고는 820년대 초반무렵 아니면 적어도 평노치청군 토벌(819) 이후의 어느 시기에 산둥반도의 문등현

21) 당 노예상들의 신라인 매매가 성행하자 신라는 당나라 조정에 신라인 노예매매를 금지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 헌종은 원화 11년(816)에 ‘신라인을 노예로 삼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금지령을 내렸음. 그러나 당에 반기를 치켜든 평노치청군이 산둥반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령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 평노치청이 토벌된 후 2년 뒤인 821년 새로이 평노군 절도사에 임명된 설평이 상주문을 올려 신라인 노예매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건의하였고, 당 조정은 823년 정월에 다시 칙서를 내려 해적들의 약탈을 금하고 팔려온 신라인 노예들을 본국에 송환토록 하였음(김문경, 1997. p.69).

적산포에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건립하였다. 円仁의 일기에 의하면 법화원은 상주승이 24명, 니(尼) 2명, 노파 3명 등 29명 정도가 있었고 500석을 수확할 수 있는 장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화원내의 모든 의식은 신라풍속에 따라 신라말로 거행되었다. 양주·초주·연수항이 양자강과 회하하류 일대 및 대운하변 등에 거류하는 재당 신라인 사회의 중심지였다면, 문동현의 적산포는 산동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라인 사회의 심장부였다(김문경, 1997). 그리고 적산포는 발해, 신라, 일본으로부터 당으로 출입하는 해상교통과 교역의 관문이었으며, 819년 이전까지는 55년동안이나 고려유민 이정기 일가의 평노치청군 지배하에 있었다.

무녕군의 평노치청군토벌에 참여했던 장보고가 이곳에 법화원을 창건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게 해석되어야 하며 후일 청해진 설치와 해상무역 전개를 위한 거대한 포부의 일단이 법화원 창건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4) 장보고의 귀국시기와 그 동기(네 가지 가설)

장보고는 당의 여러 지역 특히 산동반도 일원에 법화원을 건립한 다음 청해진대사 임명(828) 이전의 어느 시기에 귀국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국 후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 3년(828)에 국왕을 알현하여 '신라인을 납치하여 노비로 매매하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진을 설치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청해진 설치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대사"로 제수하고 군졸 1만명을 내준다. 이러한 내용은 두목의 번천문집의 「장보고·정년전」과 신당서의 「신라전」,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해적소탕은 장보고 귀국 동기로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나 장보고 관련 연구자료들을 보면 다른 동기들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보고의 귀국동기로 제기되고 있는 가설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장되고 있는 장보고의 귀국동기는 대체로 해적소탕을 포함하여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표 II-6> 참조).

##### ○ 제 1의 가설 : 노예사업 추진을 위해 귀국

우선 장보고의 귀국 동기를 부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일본의 포생경자(蒲

生京子)는 장보고가 노예매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하였다(1979).<sup>22)</sup> 이러한 가설의 근거로 장보고가 평노치청군의 토벌에 가담한 사

<표 II-6>

장보고의 귀국동기에 대한 가설과 타당성

| 귀국동기에 대한 가설               | 내 용                                            | 특 징(필자의견)                                                                                    | 타당성(필자의견)                                                                    |
|---------------------------|------------------------------------------------|----------------------------------------------------------------------------------------------|------------------------------------------------------------------------------|
| ○ 노예사업 추진(일본 학자 포생경자의 주장) | - 당체류시 노예매매상황을 목격한 후 청해진을 설치하여 노예상을 추진하기 위해 귀국 | - 부정적 해석<br>- 적극적 동기<br>- 목적의식 분명한 귀국<br>- 비인간적 동기                                           | - 두목의 전기와 円仁의 일기에 나타난 장보고의 인간성에 정면 배치됨<br>- 청해진 구축후 해적 소멸이라는 결과와도 배치됨        |
| ○ 당조정의 병력감축               | - 당의 변진토벌 후 병력 감축 및 군비축소                       | - 중립적 해석<br>- 소극적(피동적) 동기<br>- 목적의식 없는 귀국<br>- 인간성과 관계없는 동기                                  | - 실제상황이므로 타당함.<br>- 그러나 군 제대의 동기에 불과함<br>- 보다 적극적인 동기가 없었다면 제대후 당에 계속 체류 가능함 |
| ○ 해적소탕                    | - 당체류시 신라인 노비매매상황 목적의 총격으로 해적소탕을 결심하고 귀국       | - 긍정적 해석<br>- 적극적 동기<br>- 목적의식 분명한 동기<br>- 인권·군사·치안, 외교, 정치적 동기<br>- 해상안전, 인간의 존엄성           | - 기록에 의해 입증되므로 타당함<br>- 청해진 설치후 해적소멸이라는 결과로 입증                               |
| ○ 해상무역 추진                 | - 당체류시 해상무역 실태를 파악한 후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귀국    | - 긍정적 해석<br>- 가장 적극적 동기<br>- 원대한 목적<br>- 해적소탕을 포함하는 목적의식<br>- 국제무역, 국제경영, 해상운송, 국제교류, 외교적 동기 | - 기록상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귀국전 법화원 건립과 해상무역 제패라는 결과로 입증됨                           |

22) 포생경자는 이 가설외에도 당 조정의 병력감축도 귀국 동기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적소탕을 위한 귀국 주장”은 부정하고 있음.

실과 적산포에 법화원을 건립한 사실을 들고 있다. 산동반도의 등주와 내주는 노예매매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고, 산동반도의 평노치청절도사를 55년간 계승시켰던 이정기 일가 역시 신라인 노예매매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평노치청군 토벌의 선봉에 참여했던 장보고가 노예매매사업의 실상을 알게 되어 적산촌에 법화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는 표면상의 동기와 달리 수익성 높은 노예매매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귀국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진 사업가로서 노예매매사업을 손대지 않고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장보고는 이정기 일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귀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포생경자의 이러한 가설은 두목의 전기와 円仁의 일기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법화원이라는 사원이 노예매매사업의 근거지로 이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다. 포생경자는 두목이 궤자의를 칭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장보고전을 집필하였기 때문에 그의 전기에 나타나는 장보고 인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두목의 정치적 집필의도를 인정해주더라도 전기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인격 됴됨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법화원이 장보고 노예사업의 근거지라는 식의 논리는 円仁의 일기로 인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앞서 분석된 대로 円仁은 장보고가 청해진대사로 임명된(828) 후 10년이 지난 838년에 구법순례행기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포생경자의 가설을 인정한다면 이 무렵 장보고는 이미 노예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그런데 円仁은 9년 6개월 동안 중국의 각 지역을 순례했으며 법화원에도 2년 7개월 동안이나 체류했다. 따라서 포생경자의 가설대로라면 円仁은 장보고의 노예사업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円仁은 귀국길에 청해진을 방문하고 싶다는 편지를 썼으며 귀국 후에는 적산명신을 건립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바, 법화원이 장보고 노예사업의 근거지였다면 승려인 円仁의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해진 설치후 신라노예 매매가 근절되었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이 가설의 타당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가 노예매매사업을 하였다면 장보고의 청해진대사직은 신라조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장보고는 넓은 도량으로 노예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해적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스스로의 지배하로 들어와 정업에

중사하게 하였다(石井正敏, 소화54년)”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

### ○ 제2의 가설 : 당조정의 병력 감축으로 귀국

평노치청군을 토벌한 후 당 조정은 병력 감축책을 시행하였다. 필요한 병력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비를 축소해야 하는 실정이 더 큰 이유였다. 따라서 이러한 병력감축의 일환으로 장보고는 무녕군을 제대하고 귀국하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실제상황이므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장보고의 제대사유로는 충분하지만 장보고의 귀국사유로는 불충분하다. 보다 더 적극적인 동기가 없었다면 장보고는 제대후 당에 잔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보고는 귀국전에 당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법화원도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보고의 귀국동기로 제시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 ○ 제3의 가설 :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귀국

번천문집, 신당서, 삼국사기 등 사료상 기록에 의해 명백히 밝혀지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설에 포함시켜 본 것은 蒲生京子を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에 포함시켜 그 타당성을 진단해보려는 것이다.

번천문집에는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가 국왕(흥덕왕)을 배알하고 ‘중국 도처에 신라인이 잡혀와서 노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해에 진을 설치한다면 해적들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자 국왕은 그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그의 청대로 하였다. 그 이후 태화년간(827~835)부터는 신라인을 잡아가는 해적들이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3)</sup> 또 신라본기에는 “청해대사 궁복(弓福)의 성씨는 장(張)씨이고 일명 보고(保臯)라 한다. 일찍이 당나라 서주에서 군중소장을 지내다가 귀국하여 왕을 배알하니 병졸 萬人으로 청해(완도)를 진수케 하였다”고 되어 있다.<sup>24)</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천문집과 円仁일기에 나타난 장보고는 용맹하면서도 도량 넓은 현자이자 인본주의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보고가 중국

23) 김문경, 전계서(1997), pp.78~79 및 김성호, 전계서(1996), p.149.

24) 김성호, 전계서(1996), p.149.

거류기간 동안 노비로 잡혀온 신라인 특히 소년소녀들을 목격한 후 해적소탕을 결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번천문집상의 내용이 신당서나 삼국사기 등 여러 사료에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장보고의 해적소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장보고가 귀국한 후에 신라인을 납치하는 해적들이 모두 사라진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가설이다.

#### ○ 제4의 가설 :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 귀국

장보고는 귀국 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가설이라 할 수 있다. 귀국전 장보고는 당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견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당 신라인 해상무역 활동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장보고는 향후 재당 신라인들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재패하려는 원대한 꿈을 키웠다고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화원 창건, 귀국, 흥덕왕 면담, 청해진 설치 등은 이러한 꿈을 실현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보고가 해상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호족출신이라는 가설을 인정한다면 해상무역에 대한 장보고의 꿈은 당나라로 건너가기 전부터 키워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 체류기간은 이러한 꿈이 보다 큰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간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장보고의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추진은 병행될 수 있는 목적이므로 장보고의 귀국은 이 두 가지 목적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 제3장 장보고의 해상활동 내용

### 1. 청해진의 특수성과 실체적 성격

장보고가 신라조정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청해진은 당시 신라의 군진들과는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특수성을 가진다. 그리고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장보고의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청해진의 실체적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여기서는 신라하대의 군진 현황을 파악한 다음 청해진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그 실체적 성격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 1) 신라하대의 변방군진과 해상세력

백제, 고구려, 신라 등 삼국시대에는 지방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로 지방행정조직이 그대로 지방 군사조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성의 장관인 성주는 곧 군대의 지휘관이었다.<sup>1)</sup>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변경의 수비를 위해 육지에 군진(軍鎭)을 설치하였는바, 삼척의 북진(北鎭)이 658년에 설치되었고 평산의 패강진(溟江鎭)은 782년에 설치되었다(<표 III-1> 참조).

그러나 해상에서 해적들의 활동이 심해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안의 요충지에도 군진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청해진은 828년 완도에, 당성진은 829년 남양에, 혈구진은 844년 강화에 각각 설치되었다. 이 중 청해진은 장보고의 세력기반이 되었고, 혈구진은 왕건의 세력기반이 되었다. 해안 요지에 설치된 군진들은 대체적으로 지방호족들의 세력기반이었으며 이러한 지방세력들은 눈을 해외로 돌려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이기백, 1978). 따라서 신라

---

1) 이기백, 전거서(1978), p.72.

하대에는 조공형식의 공무역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한 사무역이 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무역의 성행으로 일본의 대마도에 신라역어(新羅譯語)가 증설되었으며, 당나라의 산둥반도, 강소성 등 여러 곳에 신라인의 거류지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신라방(新羅坊)이라 불렀다. 이들 거류지의 신라인들을 관할하기 위해 신라소(新羅所)라는 행정기관이 설치되었고, 그 직원으로는 신라인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 신라인들의 거류지에는 무역선박들의 안전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사원을 설립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문동현 적산촌의 법화원이었다.

&lt;표 Ⅲ-1&gt;

통일신라의 군진(軍鎭) 설치 현황

| 군진 명칭    | 설치시기          | 위 치 | 기 능   |
|----------|---------------|-----|-------|
| 북 진(北 鎭) | 태종무열왕 5년(658) | 삼 척 | 변경 경비 |
| 패강진(溟江鎭) | 선덕왕 3년(782)   | 평 산 | 변경 경비 |
| 청해진(淸海鎭) | 흥덕왕 3년(828)   | 완 도 | 해적 소탕 |
| 당성진(唐城鎭) | 흥덕왕 4년(829)   | 남 양 | 해적 소탕 |
| 혈구진(穴口鎭) | 문성왕 6년(844)   | 강 화 | 해적 소탕 |

자료 : 이기백, 전게서(1978), p.117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2) 군진으로서 청해진의 특수성

청해진은 신라의 다른 군진(軍鎭들)과는 다른 면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해진의 설치시기와 설치형식, 진(鎭)의 명칭(청해진) 및 진의 장(長)에 대한 호칭(대사), 진의 군사(卒萬人), 진의 위치(莞島) 등과 관련된 특수성을 살펴본다.

### (1) 청해진의 설치시기와 형식

청해진의 설치시기는 828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의 근거사료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記) 흥덕왕(興德王)전 3년(828) 4월조(月

條)」에는 “청해진대사를 궁복으로 삼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 청해진의 설치 시기에 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청해진 설치의 대사직 임명 이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일 수도 있다(<표 Ⅲ-2> 참조).

&lt;표 Ⅲ-2&gt;

청해진(淸海鎭)의 설치시기와 형식

| 구분    | 삼국사기의 기록 | 내 용                                     | 타 당 성                                                                                                         |
|-------|----------|-----------------------------------------|---------------------------------------------------------------------------------------------------------------|
| 설치 시기 | 828년 4월  | - 홍덕왕 3년(828) 4월에 장보고를 청해진대사로 임명        | - 828년 4월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으나, 이전일 가능성이 더 높음.<br>- 사실상의 설치시기가 828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신라조정이 승인한 설치 시기는 828년으로 보아야 함. |
| 설치 형식 | 장보고의 건의  | - 장보고의 요청을 홍덕왕이 수용하고 대사직 임명과 군사 1만명을 내줌 | - 기록에 의해 타당함                                                                                                  |

청해진 설치시기를 대사직 임명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장보고가 참여한 평노군토벌이 완료된 819년부터 청해진 대사직 임명이 이루어진 828년 사이, 즉 9년 동안에 이루어진 장보고의 행적에 있다. 즉 장보고는 9년 동안 재당 신라인들의 거주지를 돌아다녔으며 적산촌에 법화원을 설립하였고 일본에도 왕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2)</sup> 따라서 장보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미 청해진을 설치한 후 이를 홍덕왕으로부터 추인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한 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후 상황으로 미루어 대사직 임명 이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사실상의 설치시기가 828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신라조정이 승인한 시기가

2) 김성호 씨는 장보고가 819년에 무녕군을 제대하여 재당 ‘신라소 대사’로 취임한 후 법화원을 창건하였으며, 824년에는 일본에 왕래한 다음, 828년 신라에 와서 청해진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함(1996, p.66).

828년이므로 신라의 군진으로서 청해진의 설치시기는 흥덕왕 3년으로 해석해야 한다.<sup>3)</sup>

그리고 청해진의 설치 형식에 있어서도 장보고의 요청을 흥덕왕이 승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열거한 신라의 군진들은 신라왕이 설치한 것들인 데 반해 청해진의 경우엔 사실상 장보고가 이미 설치한 것을 신라조정에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청해진은 설치형식에서부터 다른 군진들과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청해진'과 '대사'의 명칭

'청해진 대사'는 신라의 군진 명칭이나 관직 명칭에서 특수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즉 신라의 군진들은 패강진, 당성진, 혈구진 등의 예로 알 수 있듯이 대개 지역의 이름에 근거한 명칭이 붙어 있다. 그러나 청해진의 경우엔 지역의 이름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당의 명명법을 인용한 명칭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바다를 맑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해진'의 작명에는 강한 의지 내지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해진'은 장보고의 의도든 신라조정의 의도든 정책적 개념 혹은 전략적 개념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성왕 즉위년(839)에 장보고에게 제수된 진해장군(鎭海將軍)의 '진해(鎭海)'에도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사'라는 관직도 신라의 무관이나 외관의 직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장보고에게만 사용된 특수한 직명이다. 「당회요」(권78)에는 절도대사(節度大使), 관찰대사(觀察大使), 진수대사(鎭守大使), 부락대사(部落大使) 등 '대사'란 직책이 많이 보인다. 여기서의 '대사'란 절도사 혹은 관찰사의 별칭으로 사용되었거나 영삭대사(寧朔大使)나 부락대사와 같이 한 지역의 장관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문경, 1997).

한편 신라에서는 군진의 장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

3) 김상기,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震檀學報 1(1933), 2(1934)」, 滿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皋の擡頭と反亂”, 「朝鮮史の發展と國際的契機」,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제16집, 1979.

다. 즉 패강진의 경우엔 진의 장을 두상대감(頭上大監)이라 하였고, 혈구진의 경우엔 장의 명칭을 진두(鎭頭)라 하였다. 그리고 진장의 품계는 급창부터 사중아창으로 되어 있다. 즉 명칭은 달라도 관등은 골품제 품계안의 관직에 속해 있다(김문경, 1997). 그러므로 장보고에게 부여된 ‘대사’란 직명은 신라 고유의 관직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사’란 명칭은 그 시대의 당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도 ‘견당사’의 최고 책임자를 ‘대사’라 하였다. 그리고 円仁의 일기를 보면 장보고 이외의 신라사람 즉 장영이나 설전에게도 대사라는 호칭을 붙여쓰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장보고에게 붙여진 대사라는 직함이 당나라의 관직계통이라 하더라도 당나라를 내왕하는 신라 또는 일본사람들에게 생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사’는 한 지역 또는 한 조직의 우두머리에 존경의 뜻으로 붙여진 직함 또는 호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물며 당의 무녕군절도사 휘하에서 군생활 하였으며 중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던 장보고에게 ‘대사’라는 칭호는 있을 법한 일이라 하겠다. 즉 청해진의 ‘대사’직은 장보고가 먼저 자칭한 후 신라왕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사’라는 직함 때문에 청해진이 신라의 조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신라왕이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다. 즉 신라 고유의 관직계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해진 대사’는 신라왕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사란 국왕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대행하는 자를 가리킨다’(포생경자, 1979)는 본래의 뜻을 신라 흥덕왕이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보고는 흥덕왕이 임명한 ‘청해진 대사’로서 신라조정의 정책인 ‘해적소탕에 의한 노비매매 근절’과 ‘해상항로 보호’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졸만인(卒萬人)’의 성격

흥덕왕이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하면서 제공한 군사 1만명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당시 신라의 군정상황, 왕정상황, 사회전반의 상황 등으로 볼 때, 변경의 군사기지에 군사 일만명을 주둔시켰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졸만인(卒萬人)’

은 장보고가 양성한 사병을 신라왕이 군진의 수호군으로 인정한 것이거나, 아니면 청해진 주변의 주민 1만명에 대한 장보고의 관할권을 정치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장보고의 출신배경과 무녕군 복무, 해적소탕 의지, 해상무역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장보고가 사병을 모집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장보고가 해상호족세력의 후예라면 장보고 일가는 이미 사병내지는 민병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에는 수군(海軍)조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장보고의 사병조직을 수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라 생각된다.

#### (4) 청해진의 위치

「삼국사기」에는 청해진의 위치를 완도로 표기하고 있다(淸海今之莞島). 청해진의 위치가 완도라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완도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에서 설명하는 의견도 있고 완도가 장보고의 고향(鄉里)이라는 이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선 완도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보면, 완도는 신라, 중국의 산둥반도, 일본의 하카다, 중국의 남부 및 동남아 등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요충지라 할 수 있으며 신라 연안지역에 출몰하는 해적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라의 왕성인 경주로 연결되는 요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왕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귀족세력의 견제를 벗어날 수 있어 해상무역에 전력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특히 해운기술이 미약한 일본의 대당(對唐) 교통의 중간 기착지로서도 양호한 입지 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여건만을 고려한다면 청해진의 위치로 굳이 완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다도해(多島海)지역에는 완도 이외에도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해진이 완도에 설치된 것은 완도가 장보고의 향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장보고는 자신의 고향이자 세력기반이 남아 있는 완도에 해상무역의 전략적 기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장보고가 완도를 근거지로 하였던 해상세력의 호족출신이라

는 학계 일부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된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당나라 무녕군 복무시절까지 장보고와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정년(鄭年)이 장보고가 청해진에 참여하기 위해 당에서 신라로 오면서 ‘고향에서 죽는 것이라면 여한이 없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도 완도와 장보고 및 정년의 관계를 가늠케 하는 것이다.

### 3) 청해진의 실체적 성격

청해진의 실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청해진을 신라의 공식 조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해진이 실질적으로는 당나라 조직이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해진이 신라의 공식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와 청해진이 당나라의 치외법권적인 조차지라는 견해의 타당성을 진단한 다음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 즉 청해진이 “반관반민적 조직”이라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표 Ⅲ-3> 참조).

#### (1) 신라의 공식조직으로 인정하는 견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해진은 신라시대에 설치되었던 일반적인 군진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수성을 보인다는 점이 학계에서 널리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청해진은 사실상 장보고가 흥덕왕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도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또한 흥덕왕이 제공했다는 군사 1만명도 신라의 공식군사가 아닌 장보고의 사병이거나 민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청해진이 신라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군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즉 이미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신라조정이 장보고를 청해진대사로 임명한 것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특히 ‘해적소탕에 의한 노비근절 및 항로보호’가 당시 신라조정의 중요한 정책과제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청해진을 신라의 군진 중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 (2) 청해진을 당나라 조직으로 보는 견해

이상과 같이 청해진이 신라의 군진이라는 점이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수긍되고 있는 데 반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청해진의 실체를 파악하는 주장도 있다.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1), (2)」를 저술한 김성호 씨는 청해진을 “당나라의 치외법권적 조차지”로 규정하고 있다.<sup>4)</sup> 김성호 씨는 우선 장보고가 당나라 대사자격으로 귀국했음을 주장한다. 이의 근거로는 ‘대사’라는 직함이 ‘당나라 군진급 책임자의 관호’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신라조정이 청해진에 병졸 만인을 내준 것도 “장보고 개인자격”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신라를 외교적으로 통제하던 치청절도사(淄靑節度使) 소속의 대사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책봉국이었던 신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장보고에 병권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신라조정의 왕위쟁탈전에서 패한 김우징(金祐徵)이 청해진으로 도망했을 때, 신라조정은 전남지역을 관할하던 무주도독(武州都督)으로 하여금 김우징을 체포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체포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왕권을 찬탈하려던 ‘1급 반역자’를 체포하지 않은 것은 청해진이 “치외법권적 조차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우징의 청해진 도피는 신라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 소유의 교관선(交關船)도 실제로는 당의 치청절도사가 부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운항한 관무역선(官貿易船)이었으며 선박운항 책임자였던 최운십이랑도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 즉 당나라 수출관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청해진의 설치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비근절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치청절도사의 부수입을 노린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의 근거로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가 노비근절에 종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성호 씨는 청해진의 또 다른 설치목적은 신라의 문호개방으로 보고 있다.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통일후 쇄국주의 정책을 유지하던 신라의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역사적 기록들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또 다른 측면을 지나치게 무시한 견해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대사’라는 직함이 당풍관작이라는 이유로 청해진대사를 당나라 관리로 단정

4) 김성호, 전게서(1996), pp.148~159 참조.

&lt;표 Ⅲ-3&gt;

## 청해진(淸海鎮)의 실제적 성격

| 구 분            | 주창자    | 내 용                                                                                                                                                                                    | 타당성(필자)                                                                                                                                                                                                                                     |
|----------------|--------|----------------------------------------------------------------------------------------------------------------------------------------------------------------------------------------|---------------------------------------------------------------------------------------------------------------------------------------------------------------------------------------------------------------------------------------------|
| 신라의 공식조직으로 인정  | 일반적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홍덕왕이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고 군사 1만명을 내주었으므로 신라 조정이 인정하는 공식 조직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에 의해 타당함</li> </ul>                                                                                                                                                                              |
| 당나라의 치외법권적 조차지 | 김성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의 '청해진 대사'직은 신라의 관직이 아니라, 당의 평노치청절도사 소속의 대사임</li> <li>- 장보고는 평노치청절도사의 지령에 따라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li> <li>- 청해진은 당나라의 치외법권적 조차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란 칭호가 당풍관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해진이 당의 조차지라고 규정하기 어려움</li> <li>- 치청절도사의 지령에 따라 장보고가 귀국하였다는 근거 없음</li> <li>- 장보고가 치청절도사 소속이라면 법화원도 치청절도사 관할이 되는데, 이를 전제하면 당조정으로부터 추방당한 엔년이 법화원에 장기 체류할 수 없었을 것임</li> </ul> |
| 신라의 반관반민 기관    | 필자의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동기는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추진이었음</li> <li>- 홍덕왕이 청해진의 설치를 허락하고 군사를 내준 것은 해적소탕을 위한 것임</li> <li>- 그러므로 청해진은 신라조정의 군사기지이자 장보고의 사무역기지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해진의 해상무역, 즉 사무역 기능은 신라조정이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li> </ul>                                                                                                                                               |

하는 데 무리가 있다. 앞서 신라 군진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군진의 장에 대한 명칭은 통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당나라 풍이라 하더라도 신라왕이 임명한 것의 권위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생각된다. 그리고 치청절도사의 지령을 받아 장보고가 귀국하였다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또한 장보고가 치청절도사 예하의 관리라 하면 법화원도 치청절도사의 관할이라는 주장이 가능한데, 이러한 주장은 당조정으로부터 추방당한 円仁이 법화원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물며 법화원에서 신라인 승려들이 신라풍 속에 따라 의식을 거행한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년 7개월 동안이나 법화원에 체류했던 円仁이 법화원이 치청절도사의 관할이라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을 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조정이 청해진으로 도피한 김우징을 옹정하지 않은 것은 청해진이 “당의 치외법권적인 조차지”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신라조정이 허약한데다 왕위쟁탈전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신라왕조는 세가 기울어 가는 시기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호족들이 세력을 키워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왕권쟁탈에 휘말렸던 당시의 신라조정으로서 청해진에 도피한 김우징을 옹정할 겨를도 능력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 (3) 청해진을 신라의 반관반민 조직으로 보는 견해

청해진의 실체적 성격을 “신라의 반관반민적 조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견해는 없었다. 필자가 청해진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청해진의 이중적 기능성 때문이다. 즉 청해진은 신라조정이 인정한 군사기지(軍鎮)이자 장보고가 사(私)적으로 추진하는 무역기지라는 것이다. 장보고가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의 허가를 요청한 것은 해적소탕이었으며 신라조정으로서도 해적의 노비매매 근절과 연안항로(沿岸航路) 및 대당항로(對唐航路)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따라서 신라 조정은 또 다른 군진으로서 청해진의 필요성과 장보고의 경력 및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라조정이 청해진의 사무역기능(私貿易機能)을 인정한 기록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신라가 관무역(官貿易)외에 사무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보고 입장에서는 신라조정과 이해가 일치되는 “해적소탕이라는 목적” 이외에 동아시아 “해상무역 制覇”라는 개인적 목적도 중요한 것이었다. 장보고로서는 무역선(貿易船)의 안전항해를 위해서도 해적소탕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따라서 해적소탕은 장보고의 인간적·애국적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상무역이라는 사업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판단을 기준으로 볼 때, 군진으로서의 청해진은

신라의 공식조직이라 할 수 있으나 무역기지로서의 청해진은 민간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장보고와 청해진의 독자성이 보다 강하게 인정된다면 ‘장보고와 신라조정의 관계’는 오늘날 국제경영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략적 제휴 관계”로 볼 수도 있다.

## 2. 청해진의 설치 목적

청해진의 설치목적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장보고 및 청해진에 관련된 연구문헌들을 보면 청해진의 설치 목적이 여러 가지로 열거되고 있다. 해적소탕 및 노비매매 근절, 동아시아 무역 제패, 김헌창 계열의 반항세력 견제, 노비매매 독점, 노비매매 근절이라는 표면적 목적 뒤에 숨겨진 치청절도사의 무역사업 추진이라는 이면적 목적 등이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동안의 연구문헌에서 제기되어 온 청해진 설치목적에 대한 여러 견해들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Ⅲ-4> 참조).

### 1) 해적소탕 및 노비매매 근절을 강조하는 견해

삼국사기 등 여러 기록에 의하면 청해진의 설치 목적이 분명하게 직시되어 있는바, 해적소탕에 의한 노비매매 근절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설치 목적이다. 이것은 장보고 개인의 목적이자 신라조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장보고 개인과 신라조정의 이해가 일치되는 공통의 목적이며 청해진이 군진의 성격을 갖게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하는 연구문헌이 있기도 하나 역사적 기록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길게 논할 필요가 없다.

&lt;표 Ⅲ-4&gt;

## 청해진(淸海鎮) 설치목적에 대한 견해

| 목 적                                                                  | 주창자                           | 내 용                                                                                                                                                                                              | 타당성(필자)                                                                                                                                              |
|----------------------------------------------------------------------|-------------------------------|--------------------------------------------------------------------------------------------------------------------------------------------------------------------------------------------------|------------------------------------------------------------------------------------------------------------------------------------------------------|
| 해적 소탕,<br>노비매매 근절                                                    | 일반적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일대 특히 서남해안 일대에 출몰하는해적을 소탕함으로써</li> <li>- 노비매매를 근절시키고</li> <li>- 항로의 안정성을 기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기록상 증명</li> <li>- 결과(해적소멸)에 일치</li> <li>- 신라 조정이 인정한 공식 목적</li> </ul>                                     |
| 동아시아<br>무역 장악                                                        | 일반적 견해<br>(김문경,이기동,<br>이영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적들을 소탕하여 해상세력을 평정한 후</li> <li>- 재당 신라인들과 유기적 관계하에서 해상무역 추진</li> <li>- 동아시아 무역의 패권 장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동아시아 무역제패)에 일치</li> <li>- 신라 조정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사적 목적</li> </ul>                                             |
| 김헌창계열<br>세력에 대한<br>견제                                                | 김동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남지역에 잔존해 있었을 김헌창(金憲昌)계열의 반항세력 견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의 정치세력화는 837년 이후의 일이므로 청해진 설치목적으로 보기 어려움</li> </ul>                                                      |
| 노비매매<br>독점                                                           | 포생경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해진의 군사적 성격은 인정되기 어려움</li> <li>- 노비매매 근절을 이유로 청해진 대사에 취임한 것은 장보고의 공작임</li> <li>- 수익성 높은 노비매매를 독점하기 위해 여타해적들을 견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해적소멸, 노비매매 근절)에 불일치</li> <li>- 청해진 설치이후 노비매매가 조직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기록이없음</li> <li>- 円仁의 순례기 내용과도 불일치</li> </ul> |
| 이중적 목적<br><br>- 표면적 : 노<br>비매매근절<br>- 이면적 : 치<br>청절도사의<br>무역사업<br>추진 | 김성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의 교관선(交關船)은 청절도사의 관무역선임</li> <li>- 교관선 책임자인 최운십이랑은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 즉 당나라 수출관임</li> <li>- 노비매매근절, 치청절도사의 부수입(무역)증대, 신라의 쇄국주의적 무역정책 개방유도등이 목적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라왕권의 권위를 지나치게 비하한 것임</li> <li>- 円仁의 순례기 내용과 불일치</li> </ul>                                                 |

## 2) 동아시아 해상무역 장악을 강조하는 견해

또한 대부분의 연구문헌에서는 동아시아 해상무역 장악을 청해진 설치의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해상무역 추진을 노비매매 근절과 병행된 목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특히 상당수의 논문들에서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패권 장악’을 청해진의 실질적인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규정하자면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추진’은 신라조정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것으로서 단지 묵인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 즉 비공식적 목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김헌창 계열의 반향세력 견제를 강조하는 견해

한편 장보고 및 청해진을 정치세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호남지방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헌창(金憲昌) 계열의 반향세력에 대한 견제를 청해진 설치의 주요 목적으로 보기도 한다.<sup>6)</sup> 김헌창은 헌덕왕(憲德王) 14년(822)에 대란(大亂)을 일으켰는데 웅주(熊州: 公州)를 근거지로 하여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고 할 정도로 충청, 전라, 경상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한 바 있다.<sup>7)</sup> 김헌창은 난을 일으킨 뒤 중앙 귀족들의 연합세력에 의해 실패하였으며, 그의 아들 범문(梵文)도 한산을 근거지로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처럼 왕권 쟁탈전에서 커다란 세력을 떨쳤던 김헌창 계열의 잔존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청해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다. 그러나 김헌창의 난이 발생한 시기(822)가 장보고가 정치세력화한 시기(837년 이후)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청해진의 설치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

5) 김문경, 전게서(1997), p.77. 및 李基東, “張保皋와 그의 海上王國”, 「장보고의 신연구」, 완도문화원, 1985. 李永澤, “張保皋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79. p.81.

6)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 특히 興德王 9년에 頒布된 諸規定의 政治的背景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39, 1982. p.43.

7) 김헌창은 武烈王系로서 선덕왕(宣德王)이 죽은 뒤에 당연히 왕으로 즉위할 것이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원성왕(元聖王)에게 밀려난 김주원(金周元)의 아들이었음(이기백, 전게서, 1978. p.114).

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장보고가 정치세력화한 것은 왕권쟁탈전에서 밀려난 김우징이 청해진에 의탁한 837년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헌창 계열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를 828년 이전에 설치되었을 청해진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대사로 임명하던 시기(828)에 김헌창의 일족인 김양을 무주도독에 임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김헌창의 잔존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청해진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해진 설치 이전의 장보고가 정치적 야심가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 4) 노비매매 독점을 강조하는 견해

일본의 포생경자(1979) 등 일부 학자들은 청해진의 설치목적을 ‘노비매매의 독점’으로 보기도 한다. 포생경자는 우선 흥덕왕이 청해진에 제공했다는 장보고의 병졸 만명(卒萬人)을 부정한다. 만명을 실제의 숫자로 보기 어려우며, 졸(卒)도 군사가 아니라 장보고 지배하에 있던 섬주민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라조정이 장보고의 도민지배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해진의 군사조직적 성격이 강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청해진을 신라 군진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장보고가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의 필요성으로 노비근절을 강조한 것은 청해진대사로 취임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장보고가 수익성 높은 노비매매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그 많은 부를 축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청해진 설치의 중요한 목적으로 ‘노비매매 독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가 피살된 것도 노비매매 독점에 대한 이권다툼의 결과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포생경자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청해진 설치의 실질적인 목적이 노비매매의 독점이었다면, 청해진 설치 이후에 노비매매가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인정되기 어렵다(이기동, 1985). 오히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는 해적이 사라지고 노비매매도 없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노비매매 근절을 청해진 설치목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円仁의 일기에 나타난 장보고, 청해진, 법화원, 재당 신라인들 관련 내용에서도 장보고 및 청해진의 노비매매 독점은 인정되기 어렵다. 더구나 노비매매를 독점하려는 장보고가 신라조정으로부터 청해진대사로 임명받기 위해 노비매매 근절을 흥덕왕에게 허위로 공작했다는 주장은 신라왕권의 권위와 능력을 너무 과소 평가한 소치라 생각된다.

### 5) 치청절도사의 무역사업을 강조하는 견해

마지막으로는 청해진의 설치목적은 표면적 목적과 이면적 목적으로 파악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김성호, 1996). 앞서 살펴본 청해진의 실체적 성격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견해는 장보고가 치청절도사 휘하의 관리이며 청해진은 당나라의 치외법권적인 조차지라는 입장에서 피력한 것이다. 즉 노비매매 근절은 청해진 설치에 대한 신라조정의 승인을 얻기 위한 표면적 목적에 불과하고, 실질적 목적은 치청절도사의 무역사업 추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역사업의 추진이 장보고의 독자적인 포부에 의해서 추진된 것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도 신라왕권의 권위를 지나치게 평가 절하시킨 소치로 생각된다.

## 3. 청해진의 조직구성과 군사적 활동

### 1) 청해진 조직의 체계 및 특성

청해진의 조직과 관련하여 「三國史記」, 「唐書」, 「續日本後記」, 「八唐行記」 등 史料속에 나타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청해진대사」, 「卒萬人」, 「副長」, 「兵馬使」, 「六驍長」, 「押衛」, 「對日廻易使」, 「遣唐賣物使」 등의 명칭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칭들을 근거로 하여 청해진의 조직체계를 작성해 보면 <그림 III-1>과 같이 군사조직, 무역조직, 재당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덕수, 1988).

군사조직은 副長, 兵馬使, 六驍將으로 편성되었고, 무역조직은 遣唐賣物使

와 對日廻易使로 구성되어 대당 및 대일 무역활동을 각각 주관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遣唐賣物使의 하급 간부직으로 渡海入唐時에 필요한 화물책임자로서 무역실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錄事(비서직), 淮錄事, 知乘船事(선박관리직) 등의 직명이 있으며, 특히 知乘船事 6명 중 3명은 大陸系 인물이고 3명중 2명이 백제계 이민의 자손으로 조직되었다.<sup>8)</sup>

무역조직의 遣唐賣物使 및 對日廻易使는 「人臣無境外之交」라는 당시의 국제간 외교·무역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대외무역 활동을 하였다. 또한 청해진이 군사조직과 무역조직의 이원체제이긴 하지만 이 체제하에서는 겸직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遣唐賣物使이면서 張保臯의 교관선(무역선)을 이끌었던 崔暈은 兵馬使라는 군사직명을 띠고 민간무역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해진의 구성원 대부분은 공동체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전 시에는 병사로서 군사에, 평시에는 羅, 唐, 日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활동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張保臯와 그의 조직원과의 인사관계는 율령적이라기보다, 소위 의제가족적 관계를 토대로 한 심정적 상하 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능력있는 개인들은 幕下에 과감히 받아들이고 厚待하여 일을 맡기고, 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조직경영을 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청해진 병의 유지 및 그 운영은 무역자본의 재정적 지원으로 충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청해진의 군사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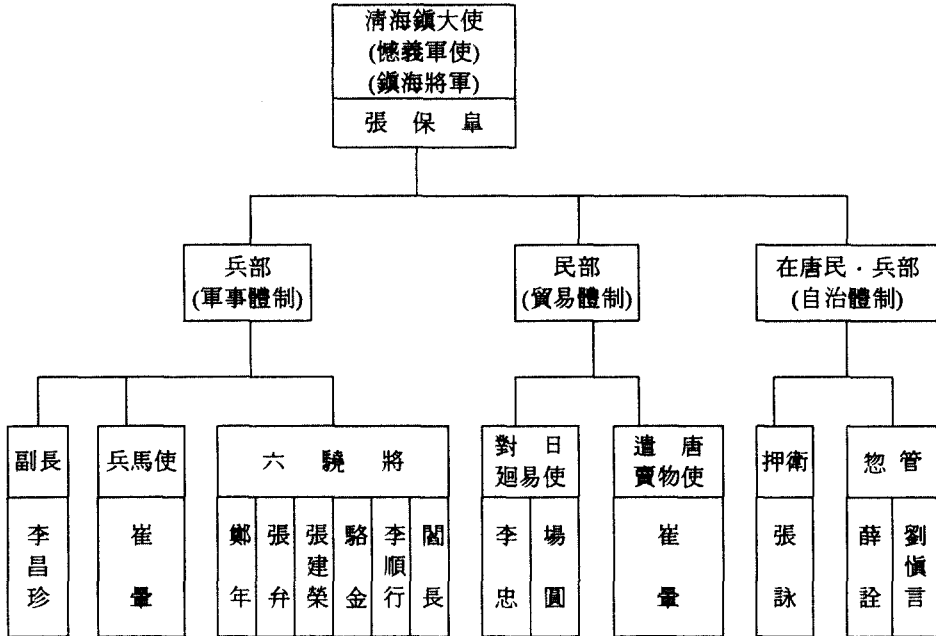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군대는 사병이지만, 그 편성과정에 있어서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간 듯하다.<sup>9)</sup> 즉 첫째로, 처음 청해진설치 당시에 그가 소유하였던 군대가 있었는데, 「大王與保臯萬人」(三國史記 列傳), 「大與保臯萬守之」(新唐書 卷220, 東夷列傳 145), 「以卒萬人鎮清海」(三國史記 卷第 10, 興德條) 등에서 보이는 「一萬人」이 그것이다. 둘째로는 王位爭奪 政爭에 失敗하자 僖康王 2년(837)에 청해진에 도피하였던 金祐微(후에 神武王) 일행이 데리고

8) 「屬日本後記」, 835년 11월 20일條, 「屬日本後記」, 承和元年(839) 6월 辛丑日(22)條(김덕수, “장보고의 해상무역에 관한 고찰”, 「한국해운학회지」, 제7호(1988. 11)에서 재인용).

9) 이영택, 전게서(1979), p.82에서 인용.

&lt;그림 Ⅲ-1&gt;

## 청해진(淸海鎭)의 조직체계



자료 : 金德洙, “張保阜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 「한국해운학회지」, 제7호(1988. 11)의 p.73.

은 잔병과 祐微支持派이다. 閔哀王 원년(838) 2월에 청해진으로 도피하여 온 祐微支持派인 귀족 金陽은 「謨士兵卒」을 데리고 왔는데 그 수는 불명하다. 셋째로 동년에 金亮詢이 데리고 온 「鵠州軍」이 그것이다. 祐微이 데리고 온 「잔병」과 金陽의 무사병졸은 전투에 경험이 있는 전문적 병사로서 장보고의 심복사병이 아니고 망명귀족 祐微의 부하였다. 그들 외래병력의 수는 불명하나 모두 배를 타고 망명한 처지로 보아서 결코 그 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838년 3월에 무주를 습격하였던 「勁兵五千人」과 남경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병력의 대부분이 청해진 설립 당시부터 있었던 장보고의 사병이었을 것이다. 金亮詢이 來降時에 데리고 온 「鵠州軍」의 수나 성격은 알 수가 없으나 청해진병력이 크게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병력의 증강이 있는 후에 驍勇, 張升, 鄭年, 駱金, 張建榮, 李順行 등의 六驍將의 군대편성이

있었고 「軍容甚盛」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진세력은 祐微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不過 5~6개월 동안만 군사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는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神武王 즉위 후 金陽 등의 사병은 그를 따라 경주로 철수하였을 것이다. 청해진에서 철수한 전문적 병사 중에는 金陽의 사병 이외에 金亮詢의 「鵝州軍」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장보고의 군대는 전투병력으로서 보다는 국제해상무역활동을 뒷받침하여 주는 민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겠다(김덕수, 1988).

#### 4. 장보고의 동아시아 해상무역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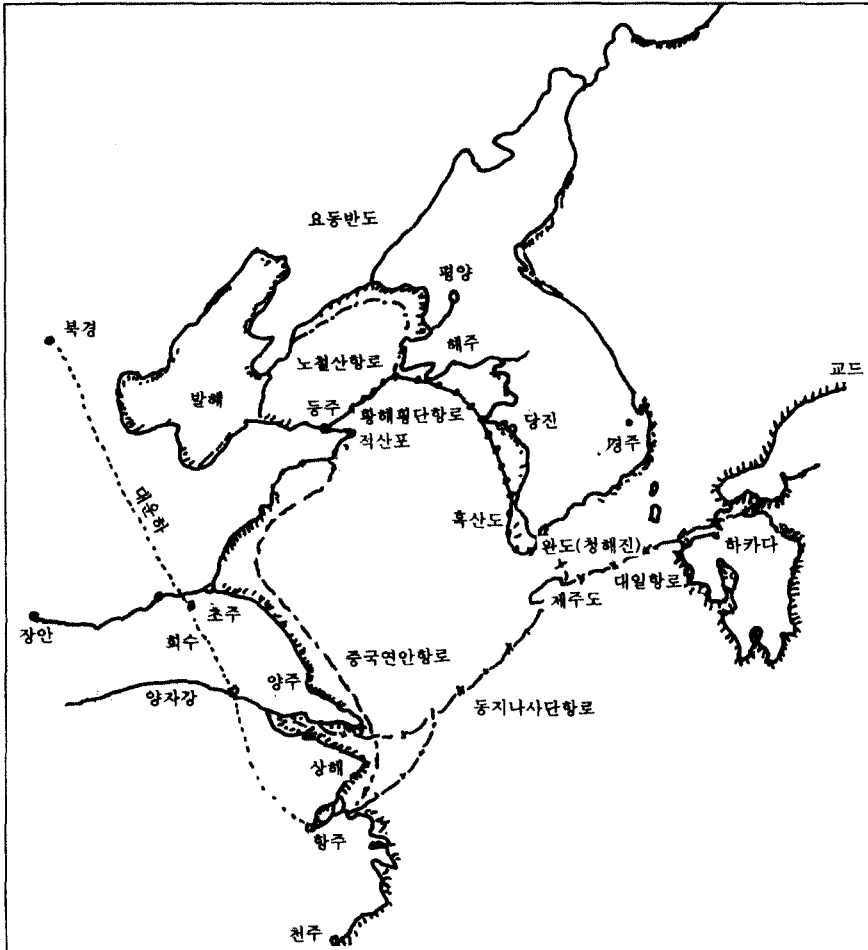
##### 1) 동아시아 해상항로 현황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고대 해상항로는 우리 고대국가들과 중국 북부의 여러나라를 왕래한 북중국항로와 남부 중국을 연결하는 남중국항로로 대별할 수 있다. 북중국항로는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연안을 거치는 노철산항로와 산둥반도와 황해도 突端部간의 바다를 직접 횡단하는 황해횡단항로로 구분된다. 남중국항로는 중국 본토와 한국 남단간에 가로놓인 동지나해(South China Sea)를 가로질러 사단하는 항로(東支那海 斜斷航路)이다(<그림 Ⅲ-2> 참조).

이들 중에서 첫 번째 老鐵山항로는 섬들이 점철되어 있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안항로로서 가장 일찍부터 이용되었고, 세 번째 동지나해 사단항로는 거리도 가장 멀고 거치른 바다길이어서 배와 항해술이 어느 정도 발달한 연후에 점차로 개발된 것이었다. 그런데 장보고가 주로 활용한 항로는 두 번째 황해횡단항로였다.

&lt;그림 Ⅲ-2&gt;

## 신라시대 동아시아 해상항로



## (1) 노철산 항로

중국의 산둥반도 등주를 출발하여 발해만의 노철산하구, 대련만, 압록강 하구 등을 경유한 다음,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웅진만과 강화도·덕적도를 거쳐 남양만에 이르는 항로를 말한다. 이 뱃길은 552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뒤로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중단 없이 사용되었다.

이 항로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한무제의 한양침공 때(元封 2년, BC 109) 부터이다. 한무제의 누선장군 楊僕은 수군 5만명을 데리고 산둥반도를 출발하여 왕검성을 공격하였는데, 이때에 楊僕은 바로 노철산도 경유항로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 후 몇백년간 양국간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이 항로가 이용되었다. 예컨대 위의 文帝 18년(598)에 수륙 30만명의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도 周羅睭가 거느린 수군은 산둥반도의 동래(동주)에서 출발하여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공격하려 했다. 그 이후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도 이 항로가 이용되었다(김재근, 1988).

신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통은 육로나 해로를 막론하고 고구려나 백제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신라가 내물왕 22년(377)에 전진(351~394)에 입공한 것이나 26년(381)에 위두(衛頭)를 보내어 조공한 일들은 모두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또 법흥왕 8년(521)에 백제 사신을 따라 양(梁, 502~556)에 입공한 바 있다. 이 때 양과의 통교는 신라에 있어서 정치·문화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율령의 반포(520), 불교의 공인(527) 그리고 건원이라는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는 등 체제의 내적 정비를 완성하게 되었다(김문경, 1998).

신라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하여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진흥왕 25년(564)에 북제(北齊, 550~577)와의 교역에서 비롯된다. 이 때 이미 신라는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항포인 남양만의 당은포(唐恩浦, 경기도 남양)를 점유하고(552) 있었으므로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손쉬워졌다. 이 때부터 신라의 중국에 대한 이른바 조공무역이 본격적으로 행해졌다(김문경, 1998).

## (2) 황해횡단항로

이 항로는 산둥반도에서 바로 황해를 가로질러 예성강·당은포에 이르는 최단거리 항로이다. 당나라 현경 5년(무열왕 7년, 660)에 소정방(蘇定方, 592~667)이 백제를 공격할 때 동주에서 바다를 건너 덕적으로 진군한 내용이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록되어 있다(김문경, 1998). 선산구문의 성주산과 개산조인 낭혜화상의 탐비에 보면(「조선금석총람」권34), 장경초(헌

덕왕 13~16년, 821~824)에 신라왕자 金昕이 당나라로 사행할 때 당은포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횡단하고 산동의 '지부산'(지부)에 도착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은포는 황해횡단로의 중요한 출발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김문경, 1998).

해류와 풍향을 이용하는 항해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항로는 많이 이용되었다. 円仁의 「순례행기」를 보면 산동반도 등주부 관내의 많은 항만들이 신라와의 교통에 이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839년 일본 조공사 일행이 신라선 9척을 고용하여 귀국길에 오른 곳도 적산포이며, 847년 円仁 자신이 귀국할 때도 이곳 적산포에서 출항하여 황해를 횡단하였다.

당에서 신라로 항해하는 출항지는 노철산항로이건 횡단항로이건 간에 등주가 중심항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원화군현지」(元和群縣志, 권11 등주)에 보면 신라·백제·발해로 내왕하는 항포의 중심지는 등주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등주부에는 신라관·발해관이 설치되었고 후일에 고려관도 있었다. 따라서 등주항은 중국과 신라간 해상무역에 있어서 중심기지였던 것이다.

### (3) 동지나해 사단항로

삼국통일 이전에 신라인들이 당은포를 출발하여 중국에 이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당으로부터 남양만에 이르러 다시 왕도 경주까지 가려면 '육행칠백리'라는 노정에다 험준한 추풍령도 넘어야 하는 고통이 따랐다. 적지 않은 '국신물(國信物)'을 지닌 사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역을 주업으로 하는 상인들도 험한 육로를 통한 수송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김문경, 1998). 따라서 나·당 양국간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육로를 대체하는 해로가 이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주에서 가까운 영일만이나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지나 흑산도 부근에서 뱃길을 서북방으로 돌려 산동반도 쪽으로 가거나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양자지구나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해로가 이용되었다. 흑산도 부근에서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항로가 바로 동지나해 사단항로이다. 이 항로의 중국측 중심항은 명주 정해현(定海縣)·대주 황암현·양주·천주·광주 등이다(김문경, 1998).

여러 기록을 살펴볼 때 신라가 통일이전부터 동지나해 사단항로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과의 교역은 진흥왕대에만 해도 전후 4차례나 되었으며, 진지왕(576~578)·진평왕(579~631)대에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다. 진평왕 7년(585)에 고승 知明이 입진한 것이나(「삼국사기」 권4), 동왕 9년(587)조에 나오는 大世와 仇柒의 이야기도 신라사람들이 남중국 의 오·월에 이르렀던 당시의 정황을 반증한 좋은 예라 하겠다. 이 밖에도 圓光法師가 선편으로 금능(남경)에 직향한 기록(「속고승전」 권13 석원광) 등은 신라가 통일 이전에 이미 이 항로를 통하여 남조와 왕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김문경, 1998).

신라통일 이후에는 중국 남부지역이 발전하고 또 항해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항로의 해상무역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사의 난(755~763) 이후 강남지역의 경제성장과 양주를 비롯한 남중국의 광주·복주·항주·명주·천주 등 여러 항구가 국제항으로 크게 번창하였다. 중세기의 이슬람·아라비아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남중국의 양주까지 무역시장을 개척하고 서방의 문물을 많이 전달하였기 때문에 양주지역은 동아시아와 서방세계를 접속시켜주는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 이러한 여파는 당나라와 정치·경제·문화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신라에 미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지역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김문경, 1998). 헌덕왕 8년(816) 흥년이 들자 신라사람 170명이 당의 절동(남중국 절강 동쪽)에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하였던 사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제 10)은 이 해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당회요」에는 망해진(명주 정해현)이 일찍부터 신라 선박의 중요한 발착항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지기승」(권11 양절동로 경원부 명주 물경 하)에 의하면 명주 창국현의 매잠산은 고려·신라·발해·일본 등의 선박이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기도 한다. 이 시기 신라인들의 항해술은 매우 우수하여 여타 나라의 선원과는 비길 바가 못 되었다. 845년 동남해상에 표류한 일본선원 50여명을 광주에서 일본으로 데리고 간 신라 선원들도 동지나해 사단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선박과 항해술

신라시대의 조선기술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삼국사기」 등에는 해사에 관한 기록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배모양이나 구조 등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후대의 「고려도경」, 「려사」, 「고려사절요」, 「책부원귀」, 등에 선박의 규모·형체에 관한 기록이 있어 그 시대의 중국·일본 등의 사료와 함께 검토하여 신라시대의 배모양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신라는 진흥·진지왕 때에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항해업무도 강화되었다. 진평왕 5년(583)에는 선부서(船府署)를 설치하여 대감(大監, 장관)과 제감(弟監, 차관)을 한 사람씩 배치하였다(삼국사기, 진평왕조). 그러나 신라가 해양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은 통일 이후의 일이다. 문무왕 18년(678)에는 병부에 예속되어 있던 선부서를 별도의 선부로 독립시키고 선부령(船府令) 한 사람을 두어 선박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뒤이어 신무왕 8년(686) 2월에 선부령 한 사람을 더 두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신라의 해상활동 및 대외무역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 믿어진다(김문경, 1998).

1983년 말에 완도 약산명 어현리 해저에서 발견된 옛 선체(「완도해저유물」,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년 12월)는 신라선박의 모양을 어느 정도 추정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인양된 선체는 11세기 고려초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통적 ‘한선구조방식’인 평저구조의 너비선이다. 서궁의 「고려도경」은 고려관선에 대해 “뱃집위에는 돛으로 지붕을 덮고 아래에는 문짝과 창문을 달았다. …… 갑판 위에는 큰 돛대를 세웠고 돛폭은 20여 폭에 달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궁이 보았던 고려배는 장보고시대의 그것보다 300년이 지난 것이지만 범선의 발달속도가 늦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고려배는 신라범선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고려초기의 유물인 동경에 조형된 범선 그림을 바탕으로 고려배의 크기를 추정해 보면, 배의 길이는 16~20m이며 배의 폭은 6~7m쯤 되었을 것이고 승선인원은 50~100명까지로 어림잡을 수 있다(김문경, 1998).

신라 조운선은 두대박이 쌍돛대이며, 갑판 위에는 돛으로 지붕을 이은 2~3개의 선실이 있어 사신이나 승려들이 기거하였고 다른 승객들은 갑판 아래에서 지냈다. 이물에는 돛을 감아올리는 물래가 있어서 돛이 매달린 돛을 감

고 풀 수 있었다. 이밖에 돛대에는 ‘부들(香蒲, 돛풀)이나 왕골로 짠 돛을 매 달았다. 이 무역선의 뱃전 난간에 방패를 세우면 일종의 전선형태인 방패선이 된다(김문경, 1988). 고대 일본의 조선기술은 신라나 백제로부터 배웠다. 일본서기(日本書記)에 의하면, 일본의 ‘이나선’(猪名船)은 신라 기술자들에 의해 건조되었고 고오도꾸조(孝德朝), 야기국(히로시마)에서는 대형 ‘백제선’이 건조되었다. 「속일본후기」(권8, 839)에 보면 9세기에 이르러서도 큐슈 대재부에서 ‘신라선’을 건조하고 그의 우수성을 격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일본의 조선기술이 백제·신라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동양고대선의 모양은 뱃머리나 배끝이 네모져 있고(方頭) 평저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1960년 3월 당대의 양주 양자현에서 대형 평저목선(길이 24m, 너비 4.3m, 깊이 1.4m)과 배 바닥이 둥글고 좁은 원저목선(길이 13.65m, 너비 0.75m, 깊이 0.56m)이 발굴되었다. 큰 배는 장부를 맞추고 못을 박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이미 침몰방지의 성능이 강한 방수선실의 기술이 시공되어 있었다. 1973년 6월 당대의 양주 해릉현 여고진 굴항(강소성 여고진 마항) 부근에서 인양된 당초의 목선(길이 17.32m, 너비 2.58m, 깊이 1.6m)도 방두·방소·평저형이었다. 이 목선은 9개의 칸막이와 하나의 돛, 그리고 철못으로 건조된 매우 견고한 목선으로서 상당히 발달된 교역선임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의 목선으로는 사선·복선·광선·조선 등 4개의 선형이 있었다. 중국의 전형적인 선형인 사선은 평저형 선박으로, 주로 대운하를 통한 조운 등에 많이 쓰였고, 복선·광선은 용골을 가진 원저선형(圓低船形)으로 물이 깊고 섬과 암초들이 많은 남쪽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사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복선·광선은 언제부터 건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당대의 선박이 그 구조 방식이나 크기·포장 및 키 등에 있어서도 같은 시대의 서양배들보다 훨씬 앞섰던 것으로 보아<sup>10)</sup> 백제·신라선의 조선기술도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해진이 설치된 시기(828)에는 신라에도 원양항해에 적합한 원저선이 이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신라선단이 나·당·일 삼국은 물론 남중국해 연안을 왕래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10) 김재근, “中世의 선박에 대하여”, 「文化財」14, 문화재관리국, 1981.

통일신라시대의 항해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양항해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중국 남조와의 오랜 교역경험을 통하여 조류(물시)·바람·해류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다. 특히 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나라 남해안·서해안의 해운에 있어서는 조류도나 해류도가 없었던 시절, 범선들은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잘 알아야 험한 해역을 항해할 수 있다. 오랜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서해에서 겨울철 바람은 북서 및 북풍이 주류를 이루며 봄철이 되면 점차 남풍으로 바뀐다. 여름철은 봄철과 비슷하여 서남풍이 분다. 가을철은 남풍이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당으로 출발하는 시기는 가을철이 가장 적당하며, 당에서 신라로 돌아오는 시기는 늦은 봄에서 여름철이 가장 적당하다. 법흥왕 이후 중국 남조와의 교역이나 많은 학승들의 당나라 유학도 이와 같은 계절풍을 잘 이용하였을 것이다(김문경, 1998).

그러나 9세기 이후가 되면 항해술의 발달로 역풍을 이용한 항해도 많아졌다. 개성 4년(839) 일본 조공사 일행을 태운 신라선 9척이 산둥반도 적산포에서 신라연해안으로 직항하였고 그것도 7월에 출발한 것을 보면 (『순례행기』 권1, 개성 4년 7월 23일) 이들의 항해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이 입증된다. 그리고 승화 12년(845) 12월 5일에 신라상인들이 광주에 표류한 일본인 50여 명을 데리고 일본에 도착하였는바, 이 시기는 역풍이 불던 계절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통일신라 사람들은 순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횡풍·역풍이 불 때에도 능히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단돛배 뿐만 아니라 다돛배도 있었음이 확실하다(김문경, 1998).

### 3) 장보고의 해상무역 활동

#### (1) 對唐 해상무역 활동

장보고의 대당 해상무역은 재당 신라인들을 자신의 지휘체제하에 두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 같다. 더욱이 그는 입당하여서 다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국왕의 권위에 의해서 청해진에 대한

지배권을 특허받고 있었으므로 이들 재당 신라인 사회를 하나의 체계 속에 조직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장보고의 중국내 교역활동의 거점은 산둥반도의 침단에 위치한 등주 적산포였다. 이곳은 당시 한반도 서남해안의 다도해를 따라 북상한 후 서해를 횡단하는 항로의 중국측 최초의 기항지이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이곳을 기점으로 하여 楚州, 蘆水, 揚州 등지에 분산되어 있던 신라인의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 속에 편제시키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이기동, 1985).

비록 창건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의 적산지방에 연간 수확량 오백미석의 壓田을 가진 법화원이란 거대한 사원도 장보고가 설립하였다. 이 법화원에서는 「講經禮懺」이 신라풍속과 신라어로 거행되었으며 모이는 사람도 많을 경우엔 250명에 달했다 하니,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 사회의 실상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국을 그리는 이들이 법화원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고, 押衛 張詠을 지휘자로 하여 장보고의 실질적인 지배하에서 활동했을 것이며, 고국에서 온 여행자라든지 무역 관계 종사자들을 위한 숙박소로도 제공되었을 것임은 물론 羅·唐·日 등의 국제적 정보교환 장소로서 교역중심권을 이루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더욱이 「入唐行記」는 법화원에서의 한국인들의 생활이 행정상 직위에 의한 권위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평등사회 사상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영위되었음도 시사하여 준다.

당시 양주에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거부가 된 신라 출신의 상인 王講 등이 살고 있었다. 양주는 페르시아 상인들까지 와서 거주하고 있던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청해진의 전성시대인 흥덕왕 9년(834)에 왕이 직접 교서를 내려 귀족들에게 사용을 금지시킨 외래의 사치품은 아마도 양주에까지 드나들던 장보고의 무역선이 수입해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白居易(772~846)의 시문과 당조명화 다수를 고가로 매점하여 귀국한 신라상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장보고가 보낸 遣唐賣物使의 소행으로 볼 여지가 많다. 遣唐賣物使의 교역품 내용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중국도자기 제조기술의 도입과 생산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청자의 원형은 중국 절강성 지구의 명산인 '越州窯 청자'로 짐작되고, 장보고

의 무역선은 직접 명주(寧波)에까지 기항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고려시대 청자 생산의 중심지가 청해진의 배후지인 강건부 대구면 일대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고려청자의 역사적 배경은 장보고의 시대로까지 소급해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도자기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장보고가 越州에서 도공을 데리고 와서 가마를 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기동, 1985).

그리고 「신당서」 신라전에는 장보고의 활동을 기록한 뒤 會昌(841A·D) 이후부터는 중국에 조공이 다시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삼국사기」 문성왕조에도 즉위 후 12년까지 조공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청해진의 장보고무역이 조공무역의 수송까지 담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2) 對日 해상무역 활동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그 초기에는 나·일 양국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성덕왕 말년 경 갑자기 국교가 파열된 이후 약 70년간은 국교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써 공무역의 길이 막히게 되자 양국간에는 사무역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했다. 그리고 당시 중국 물품에 대한 일본측의 소비욕구 또한 매우 강했는데, 이러한 물품들도 주로 신라 상인들의 중계무역에 의해서 충족되었다. 신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羅, 唐, 日의 삼각무역에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술과 항해술에 있어서도 당시 일본을 능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간의 교역은 9세기에 들어와 한층 더 활기를 띠었는데, 신라상인들이 대마도, 대지도, 평호도, 장문(하관), 박다 등의 지역을 교관지(무역소)로 활용한 사실이 일본측 기록에 보인다. 또한 신라선박 20여척이 대마도를 공격한 일이 있고, 헌덕왕 4년에는 신라인 110명이 일본 소인도에 상륙하여 상전하였다고 하였으나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는 이런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청해진을 설치한 후 장보고의 대일 교역활동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속일본후기」 권9, 승화 7년(840, 문성왕 2년) 12월 기사조를 보면 장보고가 「入臣無境外之交」라는 당시의 국가외교·무역의 원칙을 무시하고 신라 왕조와는 독립적인 처지에서, 자기의 사신을 파견하여 독자적인 무역을 일본 대제부측

과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서 권10, 승화 8년(841, 문성왕 3년) 2월 성진조를 보면, 전년(승화 7년)에 장보고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시도한 때에 보낸 물품이 마혁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도 표면적인 외교문제에 관하여는 「舊章」에 어그러진다고하여 시종 외면하였으나, 장보고의 사절이 휴대한 무역상품에 관하여는 자유교역을 허용하였다. 다만 수입상품의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가격통제는 장보고의 무역이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는 일본 하카다에 무역지점을 설치하고 현지 일본 관헌을 상대로 직접 거래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장보고가 왕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자유로이 견당매물사나 대일회역사와 같은 무역사절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공적인 성격에 가까울만큼 대규모적이었고 독자적인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는 이와 함께 국제적인 해상무역을 전개하여 거대한 상업자본을 형성하였고, 또한 상업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덕수, 1988).

### (3) 이슬람지역에 대한 해상무역활동<sup>11)</sup>

신라 무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아라비아·페르시아 등 이슬람 교권의 상인들과 교역한 일이다. 한국이나 중국측 문헌에서는 신라와 이슬람 여러 나라가 직접 무역을 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슬람 쪽의 문헌인 슈라이만(Sulaiman)의 「중국과 인도소식」(851), 알·마소디(Al-Masoudi, ?~965)의 「황금초원과 보석광」(10세기 중엽) 등에는 아랍상인들의 신라 내 왕이나 신라 견문에 관한 기록과 함께 신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sup>12)</sup>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hubah, 820~912)는 그의 저서 「제도로 및 제왕국지」에서 신라의 위치와 황금의 산출, 그리고 무슬림들의 신라내왕에 관하여 서술한 뒤, 신라가 수출한 상품명을 언급하고 있다(김문경, 1998).

11) 김문경, 「청해진의 장보고와 동아시아」, 향토문화진흥원, 1998. p153~160에 잘 정리되어 있음.

12) 무하마드 간수, 「新羅와 西域間の 文物交流」,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한편 신라 통일을 전후하여 당의 서울 장안에는 거의 만명에 가까운 서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천보(742~755) 이후로 급증하여 780년 경에는 장안에만도 5만여명에 이르렀다. 해상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아라비아·페르시아 상인들은 인도양을 넘어 동남아시아 일대에까지 무역시장을 넓혔으며, 8세기 초에는 남중국 무역중심지 광주로 진출하고 다시 복주·천주·명주로 북상하여 운하를 따라 소주·양주에까지 그들의 시장을 확대해 갔다(김문경, 1998).

「唐太和上東征傳」에 보면 당시 광주에는 “향약이나 진귀한 보물을 산적한 파라몬·페르시아·동남아(곤륜) 등지에서 온 배가 수없이 많았고 사자국·대식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랍의 역사가 아브 자이드(Abu Zayd, 9~10세기)와 알 마스디(Al Masudi, 10세기)는 당말 황소의 난(875~884)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전자는 황소농민군이 복주를 거쳐 광주로 진출하여 이를 함락하고 “이슬람교도·기독교도·배화교도 등 이곳에서 살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고 하였으며, 후자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20만명을 학살했다”고 적고 있다. 수에 과장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에 거주하던 대식인·페르시아인들의 수를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아랍·페르시아인들의 수가 십수만을 헤아리게 되니 당 정부는 일찍부터 이들의 거주지를 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번방(蕃坊)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현종 개원 2년(714)에는 ‘시박사’를 두고 이들과의 무역업무도 관리하게 하였다.<sup>13)</sup> 양주에도 많은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호상(胡商)이 내왕하고 상주하면서 양주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였다. 경제적 풍부함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양주가 천하제일이라는 뜻으로 ‘양일(揚一)’이라는 속어도 생겨났다.

광주·양주 등 국제무역항으로부터 유입되는 서방세계의 진귀한 물품들은 당나라 서울 장안과 낙양 등의 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구당서」(권45 지25) 여복지에는 개원(713) 이래 장안·낙양에서 이란계 문화 특히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물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호복·호모(胡帽)·호극(胡履, 신발)·호식·호악’ 등이 유행하였고, “태상악(太常樂)은 호곡을 좋아하고, 귀인들은 호식을 갖추어 먹었고, 사녀(士女)들

13) 김문경, “장보고해상왕국의 사람들”, “장보고”, 「해양경영연구」, 1993.

은 다투어 호복을 입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궁인들이 말을 탈 때는 모두 호모를 썼다”고 기술하고 있다(김문경, 1998).

신라는 통일 이후 당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사신을 비롯하여 승려·유학생·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였다. 이미 신라의 서울 경주는 당나라 장안에서 크게 유행하던 서역풍의 정취를 닮아가고 있었다. ‘삼십오금입택’으로 표현되던 특수 부유층들은 사치성 소비재를 제공해 주는 이슬람 상인들의 왕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김문경, 1998).

무역의 거점인 ‘번방’을 구축하고 무역권을 확대해 가던 이슬람 상인들은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던 장보고 휘하의 재당신라인 무역업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상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신라 귀족들이 애용하던 많은 이국상품은 장보고 선단을 비롯한 재당신라인들이 전달하였을 것이다.

## 5. 장보고 청해진체제의 붕괴와 그 원인

청해진체제를 구축하여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장보고는 신라의 왕위쟁탈전에 개입되어 왕의 차비 책봉문제를 계기로 어이없게 피살된다. 일반적으로 장보고는 신라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장보고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보고의 반란 여부에는 정치적 의혹이 숨어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보고의 왕권투쟁 개입과정을 살펴보고, 장보고 피살의 의혹 주체인 김양과 염장의 내력을 장보고 피살시기와 연결하여 반란여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본다.

### 1) 장보고의 왕위쟁탈전 개입과 청해진 붕괴

#### (1) 김균정 일파와 김제룡 일파간의 왕위계승전

828년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던 흥덕왕은 836년 12월에 왕위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이리하여 흥덕왕의 從弟인 김균정(상대

등)과 흥덕왕의姪인 김제룡(집사성 시중)간의 왕위계승 싸움이 시작되었다. 즉 흥덕왕의 근친들 사이에 왕권투쟁이 벌어졌다. 통일신라 융성기에 크게 강화되었던 專制的 왕권이 무너지던 이 시대에는 중앙 귀족들 상호간의 대립과 항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귀족들은 재부(財富)를 축적하여 계파별로 단결하고 정권탈취를 위해 사방으로 흘러다니던 유랑민들을 모아 사병(私兵)으로 양성함으로써 武力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왕위계승은 혈통보다도 정치적 세력과 무장력(武裝力)의 우열로 결정되곤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흥덕왕 사후의 왕위 계승전(王位繼承戰)이었다.<sup>14)</sup> 그리고 이러한 왕위 계승전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는 과거처럼 중앙귀족 전부의 대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추대한 계파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왕위 계승전의 승자는 반대파의 보복을 받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라 하대의 약 150년 동안에 20명이나 되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으며 상당수는 왕권투쟁의 희생물이 되었다(이기백, 1978).

## (2) 김우징 일파의 청해진 도피

흥덕왕이 사망하자 김균정을 지지하는 金祐懲·金陽의 일파와 金悌隆을 지지하는 김명·이흥 일파간에 왕권투쟁이 시작되었는데, 김명(제룡의 6촌 형제) 일파가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가 김균정을 살해하고 김우징(균정의 아들)과 김양의 세력을 무찔렀다(<표 Ⅲ-5> 참조). 이와 같이 김명 일파가 승리함으로써 김제룡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곧 희강왕이다. 왕권투쟁을 승리로 이끈 김명은 상대등에 임명되었으며, 패자가 된 김우징은 처자와 함께 황산진구(물금 인근)에서 배를 타고 청해진으로 도피하여 장보고대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 뒤 838년 1월 김명이 궁성을 공격하여 희강왕을 살해한 후 민애왕으로 즉위하였다. 이 때(2월) 김우징 일파의 유력자였던 김양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휘하 병사들을 몰고 청해진으로 도피하여 김우징에 합류하였다.

14)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78. p.114.

&lt;표 Ⅲ-5&gt; 왕권쟁탈전과 장보고, 김양, 염장의 개입(삼국사기)

| 연도  | 월일                         | 내용                                                                                                                                                                                                                                                                                                                                                                                                                                              | 비고                   |
|-----|----------------------------|-------------------------------------------------------------------------------------------------------------------------------------------------------------------------------------------------------------------------------------------------------------------------------------------------------------------------------------------------------------------------------------------------------------------------------------------------|----------------------|
| 828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덕왕이 장보고를 청해진대사로 임명</li> <li>☞ 이때 흥덕왕은 김양을 무주도독에 임명<br/>→ 이때 염장(무주출신)은 김양의 휘하에 있었음</li> </ul>                                                                                                                                                                                                                                                                                                          | 청해진(완도)은 무주도독의 관할이었음 |
| 83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덕왕 사망(후계자 미지정)</li> <li>☞ 김균정(흥덕왕 從弟)일파와 김제룡(균정의 姪)일파간의 왕권 싸움시작</li> <li>☞ 김명(제룡의 6촌형제)이 균정을 살해</li> <li>☞ 김제룡이 회강왕으로 즉위</li> <li>☞ 김우징(균정의 아들)이 청해진으로 도피</li> </ul>                                                                                                                                                                                                                                  |                      |
| 838 | 1<br>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명이 회강왕을 축출(자살강요)하고 민애왕으로 즉위</li> <li>☞ 김우징 지지파 김양도 청해진으로 도피(염장도 동행)</li> </ul>                                                                                                                                                                                                                                                                                                                        |                      |
| 839 | 1<br><br><br><br><br><br>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우징은 민애왕 축출을 위해 장보고에게 지원요청</li> <li>☞ 장보고는 김우징의 요청에 응함</li> <li>☞ 김양은 정년, 염장과 함께 달구벌에서 민애왕 대군(10만)을 격파하고, 민애왕도 살해</li> <li>☞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즉위<br/>→ 신무왕은 장보고를 '감의군사'로 임명<br/>→ 신무왕은 김양을 '소판점창부령'으로 임명<br/>→ 신무왕은 염장을 무주의 '차관(별가)'으로 임명</li> <li>○ 신무왕 사망</li> <li>☞ 신무왕 아들 경웅이 문성왕으로 즉위<br/>→ 문성왕은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임명</li> </ul>                                                                              | 장보고 딸의 왕비 책봉 약속      |
| 841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 사망</li> </ul>                                                                                                                                                                                                                                                                                                                                                                                      | 속일본후기                |
| 842 | 1<br><br><br>3<br><br>8/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장의 부하 이소정 일행(30명)이 일본 규슈 대재부 방문<br/>→ 장보고 사망소식을 알림<br/>→ 장보고부하 이창진의 반란도 염장이 진압했음을 알림</li> <li>☞ 염장이 발행한 증명서(문부)를 휴대하지 않은 신라선박과 신라인의 강제송환을 요청하고 또 장보고의 회역사 이충과 양원이 수송했던 무역상품의 반환을 요구함</li> <li>→ 장보고 휘하의 여러계가 일본으로 망명, 장보고가 '11월에 죽었다'고 알림</li> <li>○ 문성왕은 김양의 딸을 차비로 책봉</li> <li>○ 일본 대재부의 후지하라가 상소문을 올림<br/>→ 신라 민간인 입국 금지, 무역상인 입국은 허용<br/>☞ 863년(신라 경문왕 3년)까지 21년간 신라와 일본간 통교기사가 1건도 없음</li> </ul> | 속일본후기                |
| 845 | 3<br><br>7/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성왕이 장보고 딸의 차비 책봉 시도</li> <li>☞ 귀족들이 '해도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됨</li> <li>○ 당의 연수현 신라방에서 엔닌을 만난 장보고의 부하 최훈이 '국난'을 맞아 연수현에서 망명생활 중임을 알림</li> </ul>                                                                                                                                                                                                                                                         | 엔닌의 일기               |
| 846 | 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양의 부하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li> </ul>                                                                                                                                                                                                                                                                                                                                                                          |                      |
| 84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성왕은 김양을 시종으로 임명</li> <li>☞ 그 뒤 김양은 의정(현안왕)과 함께 '남북상'으로 임명됨</li> </ul>                                                                                                                                                                                                                                                                                                                                 |                      |
| 851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해진이 해산되고 백성들은 벽골군(김제)으로 이주됨</li> </ul>                                                                                                                                                                                                                                                                                                                                                                |                      |

### (3) 장보고의 지원과 김우징의 왕권 쟁취

청해진에서 재기를 꾀하고 있던 김우징은 김양으로부터 ‘김명이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김명에게 보복전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장보고에게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다.<sup>15)</sup> 이에 장보고는 “고인의 말에 의를 보고 용맹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나 오직 명령을 쫓겠다”는 말과 함께 군사 5천명을 정년(鄭年)에게 주어 김우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sup>16)</sup>

김우징은 김양을 동평장군으로 삼고 김양의 수하인 염장과 정년 등을 선봉으로 하여 왕성(王城)인 경주로 진격하였다. 김양의 공격군은 838년 12월 무주 철야현(나주 남평)에서 민애왕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839년 1월에는 달구벌(대구)에서 민애왕의 10만 군대를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결과 민애왕은 살해되고 김우징은 신무왕으로 즉위하였다.

신무왕은 장보고를 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천호’를 내 줌으로써 완도 일대의 주민에 대한 장보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었다(김문경, 1998). 그리고 보복군을 인솔하여 왕권투쟁을 승리로 이끈 김양을 ‘소판 겸 창부령’에 임명하였으며 김양의 수하인 염장은 무주의 차관급인 ‘별가’로 임명하였다.

### (4) 문성왕의 차비 책봉문제와 장보고 피살

신무왕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6개월 만에 죽고 태자 경웅이 문성왕으로 즉위하였다. 문성왕은 즉위 후 부왕(신무왕)을 도와던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제수하고 의복을 하사하였으며 즉위 7년(845) 3월에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이하려고 하였다(「삼국사기」). 그러나 군신들은 ‘장보고가 해도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러한 납비문제로 인해 장보고와 중앙귀족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로 문성왕 8년(846) 봄에 장보고는 김양의 수하인 염장에 의해 어이없게도 살해되었으며, 851년 2월에는 청해진이 파괴

15) 「삼국유사」에는 김우징이 왕위에 오르는 날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김우징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음(김문경, 1998. p.164).

16) 김문경, 1998. p.164.

되고 주민들은 벽골군(김제)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던 장보고와 청해진은 몇몇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해상세력도 역사속으로 소멸되어 갔으며, 재당신라들은 구심점을 잃은 채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갔다.

## 2) 장보고 피살의 원인

### (1) 장보고 피살시기에 숨겨진 의혹

앞에서 제시된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한 시기는 문성왕 8년(846) 봄이다. 그러나 일본측의 사료인 「속일본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장보고의 살해시기는 841년 11월이다. 이처럼 한국측 사료와 일본측 사료에는 장보고 사망시기에 관해 5년이나 엇갈린 기록이 공존하고 있는데, 전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측 사료에 표기된 841년 11월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일본측 사료에 의하면 842년 1월에 염장의 부하인 이소정 일행 30명이 일본 규슈지방을 방문하여 ‘장보고 사망’ 소식을 알렸고, ‘장보고 부하인 이창진의 반란도 염장이 진압했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염장이 발행한 증명서(문부)를 휴대하지 않은 신라인과 신라선박을 강제송환해 줄 것’을 대재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장보고의 회역사인 이충과 양원이 전년(841)에 수송했던 교역상품을 반환해 줄 것’도 요구한다(김성호, 1996). 즉 장보고를 살해한 염장의 부하 이소정은 장보고세력이 일망 타진되었고 염장이 청해진을 인수하였으니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당시 동아시아 무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장보고가 죽지 않았다면 청해진에 몸을 의탁했던 염장의 부하가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의 휘하에 있던 여러계라는 사람은 일본으로 가서 망명신청을 하면서 ‘장보고가 11월에 죽었다’고 알린다. 그리고 円仁의 일기에 의해서도 ‘846년 봄’이 장보고의 사망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 즉 845년 7월 9일 당나라 연수현에서 円仁과 만난 장보고의 부하 최훈십이랑이 ‘국난(장보고 사망)’을 맞아 망명생활 중임을 円仁에게 알려주었다. 따라서 「삼국

사기」에 기록된 장보고의 사망시기(846년 봄)는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의 오류가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감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왕권투쟁과정에서 장보고의 사망시기를 「속일본후기」에 표기된 '841년 11월'로 대입하여 문성왕 차비 납비문제와 연결해 보면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록의 오류가 실수가 아니라 장보고의 반란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2) 김양과 염장의 장보고 제거 필요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사료를 기준으로 문성왕의 왕비책봉과 장보고 사망시기를 재정리하자면, 장보고는 문성왕 3년(841) 봄에 김양의 부하 염장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리고 이듬해(842) 3월에 김양의 딸이 문성왕의 차비로 책봉된다. 한편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성왕이 장보고 딸을 차비로 책봉하려 한 것이 즉위 7년(845) 3월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보고가 피살된 841년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성왕의 시도는 김양이 주동한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김양은 자신의 딸이 차비로 책봉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인 염장에게 장보고를 살해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양이 자신의 딸을 왕의 차비로 책봉시켜야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염장 또한 장보고를 살해해야 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장보고를 살해해야 할 염장의 이유는 김양의 이해관계와 공유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 ○ 김양의 장보고 제거 필요성

우선 김양의 출신 내력을 보면 딸을 왕의 비로 삼아야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청해진 설치목적에 규명하는 데서 설명된 바와 같이 김양은 헌덕왕 14년(822)에 대란(大亂)<sup>17)</sup>을 일으켰던 김현창의 일족에 속하는 인물이다. 즉 무열왕의 후손인 중앙귀족에 속하기는 하나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모반세력의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17) 본 연구 제3장 2절(청해진의 설치목적) 참조.

미 정치적 생명이 끝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양은 정치적 생명을 재생시키기 위해 흥덕왕 이후 왕권투쟁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며 신무왕의 즉위로 그의 정치생명 재생전략은 일단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모반세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보다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왕과의 통혼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애당초 왕족(무열왕)의 후손이었던 김양이 자신의 여식을 활용하여 왕족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복귀하고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굳히기로 결심하던 차에, 문성왕은 부친(신무왕)과 장보고간의 약속(왕비책봉)을 지키기 위해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책봉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양은 귀족들을 선동하여 장보고 딸의 차비책봉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환을 없애기 위해 장보고를 제거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양의 장보고 제거 필요성은 또 다른 각도에서도 추정될 수 있다.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던 시기, 즉 흥덕왕 3년(828)에 김양은 무주도독으로 임명되었다. 독자적인 국가를 선포할 정도로 반역의 대란을 일으켰던 김헌창의 일족인 김양이 청해진을 관할해야 하는 무주도독이 된 것이다. 정치적 생명의 재생을 추구해야 할 그의 관할 지역에서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국제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는 김양으로서는 왕족(무열왕)의 후예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흥덕왕 사후의 왕권투쟁에서 자신이 지지하였던 김균정이 피살되고 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836년 청해진으로 도피할 때도 그는 동행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838년에서야 염장을 데리고 청해진으로 도피하였다.

김양으로서는 장보고를 책동하여 그의 무력(武力)을 빌려 왕권투쟁에 승리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케 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의 재생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장보고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호족들의 지지세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청해진을 자신의 세력으로 변신시키려 하였을 것이다. 신무왕 즉위시 김양이 자신의 부하 염장을 무주도독의 별가(차관)로 임명되도록 한 것은 김양의 '청해진지배전략'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sup>18)</sup>

18) 김양을 친장보고 세력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음(김문경, 1998, p. 163). 즉 장보고가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로 임명'되도록 김양도 협력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그러나 김양이 친 장보고 인물이라면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도피하였을 때 선뜻 동행하지 않

이상과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김양은 문성왕의 차비책봉 경쟁에서 장보고를 저지시키고 이에 따른 후환을 방지함과 동시에 청해진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장보고를 완전히 제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주도독의 별가로 파견된 염장의 첩보보고를 활용하여 장보고를 모반세력으로 선전한 다음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살해토록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 ○ 염장의 장보고 제거 필요성

염장은 무주출신의 해상세력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문경, 1998). 따라서 동아시아 해상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청해진의 수장이 되는 것을 마다할 리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관인 김양의 심복으로서 김양의 장보고 제거 노력을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염장은 신무왕 즉위 후 중앙에서 김양의 친위군으로 남지 않고 김양의 지시대로 무주도독의 별가(차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일본후기」에 나타난대로 염장은 장보고를 살해한 후에 장보고의 부하 이창진의 반향도 진압하고 청해진의 수장이 되었을 것이며, 이소정을 일본에 파견하여 자신의 문부(증명서)가 없는 신라인과 무역상인을 강제 송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장보고의 정치적 성향과 반란여부

### (1) 장보고 반란에 관한 기록과 의문점

「삼국사기」(권11 문성왕 8년, 846)에 의하면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왕이 자기의 딸을 맞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청해진에서 모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삼국유사」(권2 신무대왕 염장 궁파)에서는 장보고가 ‘왕의 약

---

았을 리 없으며 또한 자신의 심복인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임. 왜냐하면 의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보고가 김양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한 김양의 중요한 세력기반으로 역할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란자 김현창의 일족인 김양으로부터 장보고가 도움을 받았다는 추정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됨.

19) 김양이 장보고를 암살하도록 획책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동, “海上王國의 沒落”, 「張保皋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p.115 참조.

속위반을 원망하며 난을 피하고자 하였다'고 되어 있다. 즉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단정하는 것이고, 삼국유사의 내용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는 것이다.<sup>20)</sup>

남비의 실패를 겪게 된 장보고의 감정을 왕권에 대한 반란으로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기록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무력)을 지녔다는 데서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에게 '장보고의 반란사실(삼국사기)'이나 '반란확책(삼국유사)'을 부정할 역사적 사료는 없으나 장보고의 피살시기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기록의 내용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의 기본사료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는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장보고를 왕권투쟁에 이용한 중앙귀족이 장보고를 제거한 장본인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장보고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반란여부에 대한 추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보고의 정치적 성향과 반란 여부

장보고에 대해 무역상인으로서의 역할 못지 않은 정치적·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sup>21)</sup> 장보고가 정치·군사적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연결시키는 시각이다. 즉 장보고가 말을 잘 타고 창을 잘 쓰는 등 무예가 출중하여 당의 무녕군 소장으로 출세한 점, 청해진대사로 임명되어 군사 1만명(卒萬人)을 유지한 점, 왕권투쟁에 참여하여 감의군사 및 진해장군으로 임명된 점, 당나라·일본·신라의 왕실과 연결고리를 구축한 점, 특히 신라의 왕권투쟁에 군사를 지원하여 신무왕을 즉위시킨 점, 왕과 통혼(남비)하려 한 점 등등이다.

이와 같이 지적된 내용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여 장보고가 정치적 인물이며 나아가 정치적 야심가이며 따라서 모반을 일으킨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에 지적된 내용들 중 장보고의 정치적 야심 및 모반에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

20) 김문경, 1998, p.167.

21) 崔在錫, "張保臯와 그의 정치·軍事集團研究의 基本視覺", 金文經·金成勳·金井昊, 「張保臯 해양경영사 연구」, 도서출판 이진, 1996, pp.333~362.

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의 정치적 성격이다. 앞서 청해진의 특수성 규명에서 밝힌 대로 군사 1만명은 전문적인 군병력이라기보다는 훈련된 민간인에 가깝다. 그리고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은 신라조정의 정치적 관동도 아니고 군사적 계급도 아닌 권위의 상징이다.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신라왕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해상무역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장보고에게도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청해진대사’는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고 외국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권위의 상징이다. 즉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는 데는 왕명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외국에 나가 무역을 하는 데는 신라왕의 허가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은 상당히 독립적인 세력의 장보고와 국가의 왕 사이에 맺어진 공통 이해의 상징이며 일종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권위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의군사’나 ‘진해장군’으로 임명된 것도 장보고에 대한 권위를 강화시킨 것일 뿐 군사적 또는 정치적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두번째로는 김우징의 군사적 행동을 지원한 것의 정치적 의미다. 장보고가 김우징의 왕권투쟁에 5천여명의 군사를 지원한 것의 정치성이다. 장보고의 군사적 지원은 신라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정치적·군사적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장보고 자신의 표현대로 의를 중시하는 성격의 발로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장보고의 정치적 야심의 발로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세번째로 납비문제의 정치적 성격이다. 왕정체제(王政體制)에서 납비문제는 정치인들의 권력증강 및 세력확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납비는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장보고가 딸의 납비문제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중앙정치인들이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장보고를 모반으로 몰고 가기에 는 논리적 모순이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납비문제는 김우징(신무왕)이 장보고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청한 일이며 문성왕이 장보고 딸의 차비책봉을 시도한 것은 부왕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었다. 장보고가 신무왕에게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납비를 요구한 것도 아니며, 왕권 투쟁의 승리 후에도 장보고가 약속이행을 독촉했다는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장보고 입장에서 납비의 필요성은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나라·신라·일본을 막론하고 장보고의 상업적 고객은 왕실과 중앙귀족 및 지방부호들이었다. 따라서 조정에서 임명해준 ‘청해진대사’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납비문제는 장보고의 상업적 권위를 더 한층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리고 물론 장보고의 신분상승에 말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만약 장보고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그래서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면 왕권투쟁에 결정적 지원을 제공한 대가를 ‘감의군사’라는 상징적 보상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는 그의 말대로 ‘의’를 존중하는 차원에 그쳤을 뿐 정치적 야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는 기본적으로 기업가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된다. 장보고는 무예가 뛰어나고 호탕하여 장사를 사랑하는 인물이었을 뿐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순진한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은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력으로 보아 장보고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모반을 일으켰다면 청해진에 앉은 자세로 염장에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추정이 인정된다면 장보고는 자신을 살해하고 사망시기를 조정한 김양 등에 의해 모반의 누명까지 뒤집어 쓴 셈이다.

#### 4) 장보고 청해진체제의 몰락 원인과 교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보고의 피살 원인은 그의 모반이 아니라 왕권투쟁의 당사자인 중앙귀족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술책에 있다. 따라서 장보고의 청해진체제 몰락은 신라조정의 왕권투쟁에 개입한 사실과 납비문제의 현실 정치적 의미를 간과한 장보고의 정치적 무감각에 있다. 장보고는 단순히 ‘의’를 중시하는 마음에서 정치적 세력의 도피를 받아들였고 또 정치적 세력의 왕권다툼에 뛰어들었으며 정치적 세력다툼의 가장 첨예한 문제인 납비문제에 대한 김우징과 김양의 현혹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 장보고는 정치파벌의 세력싸움에 희생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마저 그릇되게

하였다. 결국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정치권력의 힘을 조금 더 활용하려다 망하게 된 것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업은 정치권력 때문에 기업생명을 망치게 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된 셈이다.

장보고의 몰락원인이 그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평가대로 그가 진정으로 정치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그는 왕권투쟁에 개입하여 성공을 거둔 후 청해진으로 물러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의 무력과 세력을 활용하여 중앙정치를 계속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했다. 그가 이러한 정치적 노력을 시도하였더라면 청해진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적극 보호하고 더욱 키워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운명도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

## 제 4 장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과 향후 해양사상 고취방향

장보고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는 학자들은 대부분이 장보고의 위대한 활동성과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극찬의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장보고에 대한 기존연구의 평가를 개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장보고 활동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한, 장보고의 활동성과를 재조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를 점검한 다음,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해 본다.

### 1. 장보고 활동에 대한 기존평가의 문제점

#### 1) 장보고에 대한 기존의 평가내용

장보고 대해 최초의 전기를 남긴 시인 두목은 장보고를 용사, 도량 넓은 현자, 의를 존중하는 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표 IV-1> 참조). 그리고 앤넌의 일기에는 장보고를 한없이 존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법화원 사람들의 생활양태에 대한 묘사에서 장보고가 평등주의자요, 민주적 의식을 가진 자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과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장보고에 대한 평가는 ‘반란자’ 혹은 ‘반란기도자’로 귀착되었다. 이것은 장보고의 정치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장보고에 대한 평가는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에서부터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바, 그는 장보고에 대해 “全 新羅人의 海的 노력을 集大成하여, 거기 一層의 光輝를 더해 놓은 者가 海의 偉人

우리의 張保臯였다”고 기술하였으며, “新羅 海運의 영광을 表象하는 千古의 偉人”으로 평가하였다.<sup>1)</sup> 즉 장보고를 우리나라 해운발전의 역사적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다. 또한 장보고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기 교수는 장보고를 ‘해상왕국의 건설자’로 규정하고는 “장보고는 황해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해협의 해상권을 장악하는 일면, 해외신라인의 세력배경이었으며, 한편 동아해상의 패자로서 무역·교통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수행하였다”고 기술하였다.<sup>2)</sup>

&lt;표 IV-1&gt;

장보고에 대한 평가 사례

| 주요 평가자          | 평 가 내 용                                                           | 평 가 시 기 |
|-----------------|-------------------------------------------------------------------|---------|
| 두목(번천문집)        | ○ 용사, 도량넓은 현자, 의를 존중하는 사람                                         | 9세기 전반  |
| 김부식(삼국사기)       | ○ 반란자                                                             | 1145년   |
| 일연(삼국유사)        | ○ 반란기도자                                                           | 13세기 후반 |
| 최남선             | ○ 東方 海王<br>-신라 해운을 집대성한 천고의 위인                                    | 1929년   |
| 김상기             | ○ 해상왕국의 건설자                                                       | 1935년   |
| E.O. Reischauer | ○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The Trade Prince of the Maritime Commercial Empire) | 1955년   |
| 이기백             | ○ 해상의 왕자                                                          | 1967년   |
| 포생경자            | ○ 노예 무역업자                                                         | 1979년   |
| 이기동             | ○ 해상왕국 건설자                                                        | 1986년   |
| 김성훈             | ○ 현대적 의미의 ‘국제해양인’<br>○ 한국 최초의 ‘軍産復合 종합상사’ 건설                      | 1996년   |
| 김문경             | ○ 세계 최초의 해상질서 확립자                                                 | 1998년   |

또한 미국의 동양사학자인 Reichauer는 장보고를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The Trade Prince of the Maritime Commercial Empire)”으로 평가하였으

1) 최남선(崔南善), “一千百年 前の 東方 海王 「新羅 清海鎮 大使」 張保臯”, 「六堂 崔南善 全集」, 玄岩社, 1974. p.50.

2) 金祥基, “古代的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取하여”, 「震檀學報」, 제2권, 1935. p.133.

며 중국 동부와 신라, 그리고 일본간의 무역은 대부분이 신라인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진단하였다. 그 외에 이기백씨는 장보고를 ‘해상의 왕자’로 평가하였고, 이기동 씨도 김상기 씨처럼 장보고를 ‘해상왕국의 건설자’로 규정하면서 장보고의 해상왕국 건설을 ‘한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의 절정(絶頂)과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뒤 김성훈 씨는 장보고를 ‘현대적 의미의 국제해양인’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최초의 군산(軍産)複合 종합상사의 건설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김문경 씨는 장보고가 ‘세계 최초의 해양질서 확립자’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도 장보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일본의 포생경자(浦生京子)가 장보고를 ‘노예무역업자’로 평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포생경자는 이윤이 높은 노예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그처럼 단기간에 그 많은 부’를 축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보고를 노예무역업자로 규정하였으며 그 당시의 해적활동에 연계시키고 있다.

## 2) 기존 평가의 문제점

장보고에 대한 이상과 같은 평가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수준의 평가라 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뜻밖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물론 장보고의 세력기반을 분석하는 논문도 많았으며, 그 당시 국제질서를 장보고 활동에 연결시키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기록이 빈약한 ‘장보고스토리’를 완성하려는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과론적 사실을 연대기에 끼워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최근에 와서야 ‘세계 최초의 해양질서 확립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세계해양사적 의의를 찾는 노력이 보이고 있으며, ‘군산복합 종합상사의 건설자’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국제경영차원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역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체계적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장보고의 동아시아 해상권 장악’이라는 놀라운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논문이나 평가서에서는 장보고의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와 반란에 대해 수긍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장보고가 5천의 군사를 지원해 준 김우징의 경주 공격군을 반정부군으로 규정하거나, 납비문제가 무위에 그치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란을 기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보고 죽음의 원인이 그의 정치성으로 귀착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과 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분석과 평가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3장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보고의 반란을 부정해볼 수 있는 상황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 만약 이 점이 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장보고의 역사적 이미지가 180도 전환되는 것이므로 향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된다.

## 2. 장보고 활동에 대한 재조명

### 1) 장보고 활동에 대한 접근시각

지금까지 장보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장보고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물사적 평가에 그치게 되고 이로 인해 평가내용이 산만하고 종합적이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교훈의 도출효과가 매우 박약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자세에 수반되는 평가는 파벌적·지역적·국가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장보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구축했던 체제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의 해상활동은 개인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의 활동은 세계 해운사와 무역사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남겼기 때문이다. 체제적 접근의 또 다른 필요성은 동아시아 무역의 장악이 장보고 개인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국제적 환경과 동아시아에 퍼져 있던 한민족들, 그리고 당시의 기술적 자산 등을 장보고가 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체제적 접근의 세 번째 이유는 동아시아의 해

상권 장악이 잘 짜여진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보고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가 구축했던 체제를 대상으로 해야만 장보고 개인적 의의와 국가적 의의, 그리고 국제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되새길 수 있게 된다. 장보고가 구축했던 체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규정될 수 있는바, 우선 그가 구축했던 「장보고 청해진체제」와 청해진체제를 근간으로 구축한 「장보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는 그 의의가 청해진세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장보고 동아시아체제」로 규정해본다.

## 2) 「장보고 청해진체제」에 대한 재조명

앞서 청해진의 설치 목적을 규명할 때 이미 밝힌 대로 청해진의 설치는 ‘해적소탕에 의한 노비매매 금지 및 해상치안 유지’라는 신라조정 목적과 ‘해적소탕에 의한 해상항해질서 유지 및 해상무역 추진’이라는 장보고 개인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신라조정은 ‘청해진대사’라는 직함과 ‘일만명의 군사’를 인정함으로써 장보고가 해적세력을 소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고, 장보고로서는 ‘청해진대사’라는 왕실의 허가증을 내세워 해상질서를 평정하고 당나라 및 일본의 왕실·중앙귀족·지방호족들을 상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청해진대사’는 ‘바다를 맑게 한다(해상질서의 안정을 회복한다)’는 조정의 정치적 목적과 ‘바다를 지배한다(해상무역을 장악한다)’는 개인의 상업적 목적간에 ‘국가적 권위’와 ‘해상방위력’을 주고받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의 청해진체제는 군사조직과 함께 무역조직이라는 이원적 조직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맺어진 ‘전략적 제휴체제’인 「장보고 청해진체제」는 해적소탕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보고는 해상무역을 안전하게 추진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인물로 성장하면서 청해진을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라조정으로서 해적이 소탕됨으로써 노비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고, 청해진을 서남해안의 해상질서유지에 계속 활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對唐 조공무역항로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표 IV-2> 참조).

그리고 장보고 청해진체제가 하나의 대외적 방어망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신라조정의 왕권투쟁이 계속될 수 있었다는 아이러니칼한 해석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서는 왕권투쟁에 참여한 중앙귀족들이 청해진체제의 강력한 힘을 왕권투쟁에 이용함으로써 청해진세력을 붕괴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만약 신라조정이 청해진체제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하였다면, 통일신라는 동아시아의 해양강국으로 번영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라조정의 잘못된 활용으로 해양강국의 싹이 잘려진 셈이다.

결국 청해진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라조정과 장보고간의 '전략적 제휴체제'라는 점이며, 이러한 제휴로 신라는 해안국경의 안정을 얻었고 장보고는 동아시아무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lt;표 IV-2&gt;

「장보고 청해진체제」의 성과와 의의

| 구 분  | 청해진 설치목적                    | 성 과                                                          | 의 의                                                                                                       |
|------|-----------------------------|--------------------------------------------------------------|-----------------------------------------------------------------------------------------------------------|
| 장보고  | - 해상무역 추진<br>- 해적세력 평정      | - 해상무역 추진으로 부의 축적                                            | - 국제적 인물로 성장<br>- 청해진체제가 동아시아무역체제의 근간이 됨                                                                  |
| 신라조정 | - 해적소탕에 의한 노비매매 근절과 해안질서 유지 | - 해적소탕 및 노비매매 근절<br>- 국제적 정보수집 및 대외무역 활성화<br>- 강력한 지방세력으로 성장 | - 청해진체제가 서남해안의 안정된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됨<br>- 청해진체제의 대외방어망 역할로 중앙귀족들의 왕권투쟁 지속 가능<br>- 왕권투쟁에 활용<br>- 대당조공항로 유지비용 절감 |

### 3)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에 대한 재조명

장보고는 청해진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를 구축하였다. 사실 장보고의 해상무역은 청해진을 구축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이미 구상되었으며 실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나라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군인으로서, 여행자로서, 재당 신라인의 지도자로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 또는 국제적·상업적 감각 등이 장보고체제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는 ‘동아시아 무역’이라는 거대한 상업적 전략과 ‘노예매매 근절’이라는 인본주의적 구상을 가다듬고 법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재당 신라인들을 조직화하였으며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당시절의 구상과 부를 기반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세력을 평정·통합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조정으로부터 허가받은 권위(청해진대사)를 앞세우고 청해진체제의 힘을 사용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 (1)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구조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첫번째 특징으로는 동 체제가 신라의 청해진, 일본 규슈지방의 하카다, 당나라 북부의 적산포, 당나라 강남의 양주를 네 개의 해상항로로 연결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그림 IV-1> 참조). 적산포, 양주, 하카다 등은 장보고가 운영하는 교관선의 직접 기항지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속의 대외기지, 즉 네트워크의 전략적 기지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지는 현지 교포에 의해 관리되는 ‘현지화체제’를 형성하였다. 특히 적산포에서는 법화원을 설립하는 등 직접투자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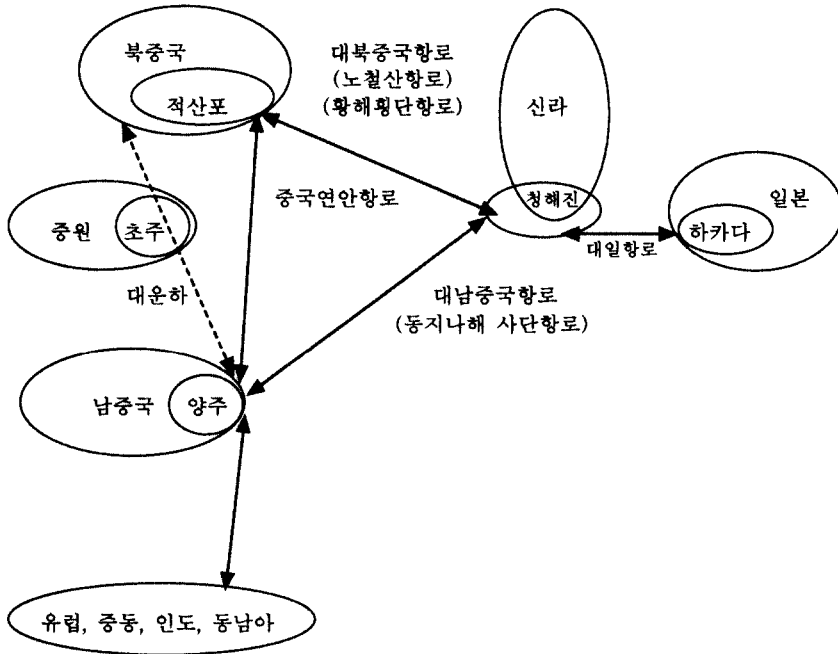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두번째 특징은 양주에서 이슬람의 상인들과 연계무역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무역상인들의 동아시아 활동은 계속 북상하여 양주에서 멈추었다. 양주 이북의 동아시아에 장보고체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양주에서는 동남아, 인도, 중동 등의 상품과 동아시아 각국의 상품이 교환되는 장소가 되었다.

동 무역체제의 세번째 특징은 중국의 북부상권과 강남상권을 연결하는 시스템이기도 하였다. 연결수단은 당나라의 대운하 및 연안항로였으며 연결의 주체는 대운하주변과 동안(東岸)주변의 재당 신라인들이 담당하였다.

동 무역체제의 네번째 특징은 청해진을 중심본부로 하는 ‘단일 경영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장보고가 운영하는 교관선들에 의해 직접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고, 청해진의 견당매물사 또는 대일회역사들의 출장왕래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지휘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lt;그림 IV-1&gt;

## 장보고의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



## (2) 주요 전략기지의 역할

위에서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주요 전략기지로 규정된46 청해진, 하카다, 적산포, 양주 등의 시스템적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3> 참조).

우선 청해진은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본부역할을 하였다. 교관선 운항의 지휘본부일 뿐만 아니라, 견당매물사와 대일회역사를 파견하여 주요 전략적 지시사항을 통보하고, 각 지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 것이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당나라, 신라, 일본 등의 정치사회 동향이 장보고체제에 의해 얼마나 신속하게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청해진은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해주는 중계무역의 기지이기도 하였다. 또한 청해진은 신라 서남해안의 치안유지(해적소탕) 기지이기도 하였으며 대외교역의 관문이기도 하였다. 결국 신라의 대외방어망센터이자 중요한 국제정보의 공급처이기도 하였다.

&lt;표 IV-3&gt;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에서 주요 전략기지의 역할

| 기 지 | 역 할                                                                                                                                                             |
|-----|-----------------------------------------------------------------------------------------------------------------------------------------------------------------|
| 청해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의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의 본부</li> <li>- 동아시아 무역 중계기지</li> <li>- 신라의 대외무역 관문</li> <li>- 신라 남서해안의 치안유지 및 방어망 센터(해적소탕)</li> </ul> |
| 적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중국 무역관문(북경과 장안 연결)</li> <li>- 재당 신라인 지휘소(법화원)</li> <li>- 정보수집 기지</li> </ul>                                           |
| 초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운하운송의 거점</li> <li>- 당나라 수도 장안의 연결관문</li> <li>- 북중국 상권과 남중국 상권의 연결 중심지</li> </ul>                                      |
| 양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중국 무역관문(연안운송, 대운하운송)</li> <li>- 동아시아 상품과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상품의 교환기지</li> </ul>                                          |
| 하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무역의 관문(장보고 무역사무소)</li> </ul>                                                                                        |

하카다는 장보고 무역사무소가 운영된 곳으로써 일본무역의 관문역할을 하였다. 물론 일본과 동아시아간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정보 및 문명의 교류창구이기도 하였다.

적산포는 장보고 무역체제에서 청해진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중국 무역의 관문임은 물론 법화원을 운영함으로써 재당 신라인들을 집중시키고 단결시키는 지휘센터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동향과 정세에 관한 정보가 집결되는 정보집중센터이기도 하였다.

양주는 남중국의 관문이었으며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상품과 문물을 전달하는 이슬람 상인들과의 접촉기지였다. 그리고 당나라 연안운송과 대운하운송의 전략기지였다. 양주가 동아시아와 서방세계가 교류하는 접점이었다는 데서 장보고체제의 세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초주는 중국 중원진출의 중요한 기지였다. 대운하의 중간을 장강과 연결하는 운송의 요충지로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었다. 그리고 북부상권과 남부상권간의 교류를 매개하는 기지이기도 하였다. 특히 서방상인들이 전달하는 상품과 문물들을 인수하여 초주에 집결시킨 후, 당나라 중

원의 소비시장인 낙양과 장안 등으로 수송하였으니<sup>3)</sup> ‘장보고 무역체제’에서 양주는 중국의 對서구 관문이었는데 반해 초주는 중원의 물류기지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기지는 장보고체제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적산포에서 청해진을 거쳐 하카다에 이르는 동서라인은 ‘장보고 무역활동’의 중심축이 되었다.

### (3) 무역활동체제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활동내용을 무역범위, 무역형태, 주요 고객, 추진 방식, 운송방식 등의 측면에서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활동 범위에 있어서 상선대의 기항지와 네트워크 설치지역 등 지리적 기준에서만 보아도 활동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거대한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였다(<표 IV-4> 참조). 그러나 교역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까지 연결되는 과히 세계적 활동체제라 규정될 수 있다.

무역형태상의 활동내용으로는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장보고 무역체제는 신라의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중계무역도 담당하였으며 양주를 접점으로 하여 이슬람상인들과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각 국과 서방세계간의 연계무역도 담당하였다.

무역활동의 주요 고객, 즉 주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신라, 당나라, 일본 등의 왕실, 중앙귀족, 지방호족(부호)이나 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였다. 중국, 신라, 일본간에 주고받은 상품 중에는 금·은·동·약제·호피·비단·공예품·차·서화·칠기·도자기·말·낙타·불상·서적 등 진귀한 물건이나 희귀상품들이 주종이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로부터 인수하는 상품 역시 공작미·비취모·대모·자단·직물·향·유리기물 등 귀족들의 애호품이 주류였다.<sup>4)</sup> 다시 말해 장보고의 무역체제는 돈 많은 소비층을 상대로 마진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고도의 마케팅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무역의 추진방식으로는 현지 진출방식, 네트워크 구축방식, 연계체제 구축

3) 김문경, 1998, p.178.

4) 김문경, 1998, p.183.

방식 등 현대적인 방법이 도입되었다. 적산촌과 하카다에는 현지 진출방식이 적용되었고, 당나라의 신라인과 일본 규슈지방의 신라인들을 참여시키는 네트워크방식도 활용되었다. 그리고 서방세계와의 무역은 이슬람상인들과의 연계체제를 활용하였다.

상품의 수송과 관련하여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원양수송의 경우에는 소유상선대의 '직기항(直寄港) 수송방식'을 활용하였고, 대운하수송과 당나라 연안수송은 재당 신라인들에 위탁하여 원양수송과 연계시키는 '위탁연계 수송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lt;표 IV-4&gt;

장보고 무역체제의 활동내용

| 구 분     | 특 징                                                                                  |
|---------|--------------------------------------------------------------------------------------|
| 무역범위    | - 지리적 범위 : 동아시아(거점망, 상선대 기항지)<br>- 교역상품 범위 : 세계적<br>(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
| 무역형태    | - 신라의 직교역<br>- 중계무역(중국/일본)<br>- 연계무역(동아시아/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
| 주요고객    | - 왕족, 귀족, 지방부호, 관리                                                                   |
| 추진방식    | - 현지 진출(등주-법화원, 하카다-사무소)<br>- 네트워크 구축(재당 신라인 활용)<br>- 연계체제 구축(재당 신라인/페르시아인)          |
| 운송방식    | - 직영 상선대(교관선)의 해상수송<br>(대일항로, 북중국항로, 남중국항로)<br>- 위탁연계운송방식<br>(해상/운하 연계수송, 중국연안 연계수송) |
| 활동의 자율성 | - 신라, 당, 일본 조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활동                                                     |

#### (4)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성과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성과는 장보고 개인적 차원, 신라차원, 동아시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장보고 개인차원에서 보았을 때 동

체제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제패'하였고 '동아시아 해상세력을 형성'시켰다. 이로 인해 장보고가 '국제적 해양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제기업(일종의 다국적기업)을 출현시킬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남겼다(<표 IV-5> 참조).

<표 IV-5>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성과와 의의

| 접근 시각            |                                | 성과 내용                                                                                                       | 의 의                                                                                                                                       |
|------------------|--------------------------------|-------------------------------------------------------------------------------------------------------------|-------------------------------------------------------------------------------------------------------------------------------------------|
| 장보고 개인           |                                | - 동아시아 해상무역 제패<br>- 동아시아 해상세력 형성                                                                            | - 국제적 해양기업가 탄생<br>- 국제기업(다국적 기업) 출현                                                                                                       |
| 신 라              |                                | - 대외교류 확대(정치·경제·문화)<br>- 민간무역 발전<br>- 동아시아 해양지배<br>- 참여인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br>- 해외교포 성장 및 동질감 형성                | - 국가위상 제고, 신라인 긍지양양<br>- 경제발전 및 해양중심국의 기초마련<br>- 해외교포와의 국가적 네트워크 기초 제공<br>- 국제적 해양기술 축적 및 해양 인력과 노하우 확보<br>-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활용실패로 역사적 효과없음 |
| 동<br>아<br>시<br>아 | ○무 역<br>○해 운<br>○정치·사회<br>○문 화 | - 동아시아 해상무역 확대<br>- 동아시아 해운시장 형성<br>- 동아시아 인적교류 확대, 제도 전파, 외교유지.<br>- 동아시아 문화(언어, 문물, 종교, 미술, 공예, 학문) 교류 확대 | - 동아시아 단일시장 계기<br>- 동아시아 종합교류 시스템 구축<br>- 정치·사회·외교 발전 기여<br>- 동아시아 문명발전에 기여                                                               |
|                  | 중 국                            | - 중국 해상교통의 발달<br>- 북부상권과 남부상권의 통합 계기<br>- 중국 문물·제도 전파                                                       | - 인적자원과 노하우 계승<br>- 중국경제권 형성에 기여<br>- 중국문명의 국제화에 기여                                                                                       |
|                  | 일 본                            | - 대외교역 유지 및 확대<br>- 문물제도 유입<br>- 동아시아 정세 파악<br>- 유학생(승) 파견으로 인적자원 확보<br>※ 독자적인 해상교통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 일본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br>- 해양기술력 계승<br>- 「장보고 동아시아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                                                                           |
|                  | 세계적 차원                         | - 동아시아의 세계교류 확대                                                                                             | - 동아시아의 세계화에 기여                                                                                                                           |

신라조정 입장에서 「장보고 동아시아체제」는 대외교류확대에 기여를 해주었다. 조정에서 왕권투쟁에 여념이 없을 때도 ‘공적무역’을 훌륭히 대체해주었으며, 민간무역체제를 발전시켜줌으로써 신라인들의 생활편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 청해진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제공해주었고 해외동포들의 성장과 동질감 형성에도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 동아시아체제」는 신라에 국제적인 해양기술(조선, 항해)을 축적시키고, 해양인력과 노하우도 배양시켰으며, 해외동포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시킴으로써 신라가 동아시아의 ‘해양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라조정은 끝까지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 씨앗이 매마르게 하였다.

한편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 입장에서도 큰 성과를 남겼는 바,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확대시키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활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역사적 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장보고 동아시아체제」는 동아시아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교류의 유지 및 확대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이것은 주로 당의 체계적인 문물과 제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으므로 중국문명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한 셈이다.

특히 독자적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했던 일본에 있어서는 장보고의 상선대가 정보와 문물의 중요한 도입수단이었으며, 유학생(승)의 입당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지식기반 확충에도 공헌하였다. 그리고 당과 신라에 대한 일본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정보와 문물이 일본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문명이 고립되지 않도록 기여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장보고 동아시아체제」는 의미있는 존재로 평가받아야 한다. 우선 당나라의 해상교통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해양경영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유산으로 남김으로써 훗날 송나라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북부상권과 남부상권을 통합시켜 중국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문명의 전달자로서 중화문명의 국제화에도 많이 기여하였다.

한편 동아시아 전체적 입장에서는 「장보고 동아시아체제」가 이슬람상인

들과 접촉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세계교류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결국 장보고체제는 동아시아 전체적 차원에서 교역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정치·사회·문화의 전달자로서도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 3. 「장보고 해양경영」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1) 성공요인

##### (1) 기업가적 자질

장보고의 해양경영 성공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환경요인, 전략적 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장보고 개인의 자질이 첫 번째의 성공요인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장보고는 출신배경이 해도인이었기 때문에 해상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무예가 뛰어났고, 그 시대에 당나라에 건너갈 만큼 모험심도 강하여 혁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표 IV-6> 참조). 그리고 장보고는 도량이 넓고 장사를 사랑하고 의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신뢰감이 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법화원에 모이는 사람들의 생활이 행정상의 직위에 관계없이 인격을 존중하는 평등주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엔닌의 일기)<sup>5)</sup>으로 미루어 장보고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겸손하면서도 혁신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는 당의 무녕군 복무활동을 통해 조직에 대한 리더쉽을 획득했을 것이며, 15년여의 당나라 체류를 통해 언어력은 물론이고 중국시장에 대한 현장지식과 기업가적 국제감각을 얻었을 것이다. 또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미래지향적인 통찰력과 ‘청해(淸海)’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원대한 꿈과 의지를 소유한 자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장보고는 현대 경영학에서 매우 중시되는 리더쉽과 기업가정신을 이미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해양인으로서의 자질면에서 장보고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할 때 장보고의 자질

5) 김덕수, “張保皋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 「한국해운학회지」 제7호(1988. 11), p.80에서 재인용.

상 아쉬움은 기록정신이라 할 수 있다. 장보고가 그의 해양경영에 대한 기록을 하였더라면 보다 더 오랫동안 바다를 지배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한민족의 후손들에게 더할 수 없는 자산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해양경영의 지식이 단절되고 말았다.

&lt;표 IV-6&gt;

장보고의 해양경영 성공요인

| 구 분       | 내 용                                                                                                                                                                                                                                                                | 이순신                                                                                                                                         |
|-----------|--------------------------------------------------------------------------------------------------------------------------------------------------------------------------------------------------------------------------------------------------------------------|---------------------------------------------------------------------------------------------------------------------------------------------|
| 장보고<br>개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신배경(해양인)</li> <li>- 무예, 담력, 도전의식(모험심), 인간성</li> <li>- 당나라 군생활에서 축적된 리더쉽, 조직구성 능력, 신분위상(무녕군증소장)</li> <li>- 재당 생활에서 획득된 언어력과 부</li> <li>-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쌓은 현장지식과 노하우, 국제적 감각, 미래지향적 창의성</li> <li>- 강력하고 원대한 의지(청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예, 모험심, 인간성,</li> <li>- 리더쉽, 창의성, 청렴성, 사명감, 현장감, 기록정신, 유비무환의 자세</li> </ul>                        |
| 환경<br>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당 신라인들의 자질과 신뢰감</li> <li>- 신라 서남해안의 세력(조선, 항해, 언어, 무력, 인적자원)</li> <li>- 당나라의 개방적(상대적) 풍토</li> <li>- 당·신라·일본의 중앙정부 통제력 약화</li> <li>- 중국과 일본의 해운세력 취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신뢰감</li> <li>- 남해안의 지형과 조류 활용</li> <li>- 적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li> <li>- 水戰에 대한 적의 약점 활용</li> </ul> |
| 전략적<br>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의 지정학적 가치 활용</li> <li>- 군사력확보와 해상질서 평정(해적소탕)</li> <li>- 강력한 선단구축으로 해상권 장악</li> <li>- 신라조정과의 전략적 제휴(청해진 대사직)</li> <li>- 네트워크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동력활용</li> <li>- 선제공격</li> </ul>                                                                   |

자료 : 이순신관련 내용 - 지용회, “이순신경영학”, 「중앙일보」, 1998년 12월 8일 이후 10회 연재내용 참조.

## (2) 시대적 환경의 활용

장보고 해양경영의 성공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대적 환경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환경은 장보고의 해양경영에 매우 유리하게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조선 및 항해술과 상업적 노하우 그리고 자금을 동원할 수도 있었던 재당 신라인들의 참여는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장보고가 재당 신라인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청해’의 뜻을 품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완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서남해안의 해상세력 또한 중요한 경쟁요소였다. 서남해안 세력은 조선 및 항해술 뿐만 아니라 해적을 소탕할 수 있었던 무력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이 두 세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세력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므로 결정적인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당나라의 개방적 풍토 역시 장보고 해양경영의 출발점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당과 일본의 해운세력이 비교적 취약하였다는 점, 다시 말해 당나라 해운이 재당 신라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는 점과 일본의 해운력이 전무하였다는 여건은 장보고에게 시장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장보고의 주변여건 활용능력은 이순신에 못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천한 섬사람이 당으로 가서 군인으로 출세하고 동아시아 해양경영권을 장악하였다는 결과 자체가 장보고의 환경활용능력을 웅변해주는 것이다.

### (3) 현대적 경영전략

마지막으로 장보고의 ‘청해진체제’나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장보고의 전략적 자질은 천재적이라 할 만하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지리적 중심이자 해류의 길목인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것이 장보고의 천재적 전략의 일단을 느끼게 한다(H. R. Clark, 1992. 11. 19. 완도).<sup>6)</sup>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군사적 무력을 확보하여 해적들을 소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항해 조건을 마련하고 강력한 선단을 결성하여 해상권을 장악한 다음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신라 흥덕왕과의 전략적 제휴에 의해 획득한 ‘청해진대사’ 자격으로 당나라와 일본의 왕족, 귀족, 지방부호 등을 대상으로 해상무역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당나라의 곳곳에 분포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등을 강력한 정보망, 판매망, 수송망 등으로 활용한 점을 보면 비록 군사적 측면은 아니지만 전략에 있어서도 이순신 못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6) 김문경·김성훈·김정호,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이진, 1996. p.31에서 재인용.

장보고의 사업전략은 가히 현대적이라 할 만한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 제휴, 현지화 전략, 네트워크 구축, 연계체제 구축,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전략, 물류기지 활용 등 현대경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력한 무력과 선대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항로를 장악한 점과 당나라, 신라, 일본의 왕족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한 것은 당시로서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슬람 상인세력의 북진이 양주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막강하고 빈틈없는 네트워크에 의해 채집되는 놀라운 정보력은 장보고체제의 생명선이었다.

## 2) 시사점

### (1) 역사적 시사점

장보고 해상활동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역사적 관점에 남겨준 시사점은 해양활동이 번창하면 국가번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최남선의 평가대로 삼국시대 이래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뻗어나갔던 해상활동의 결정체로서의 ‘장보고 해상활동’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보고의 동아시아 해상권 장악’은 개인적으로 많은 재부를 축적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대외관계에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신라조정은 이러한 해양세력기반을 ‘정쟁의 방패막이’로만 활용하였고 심지어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여 함몰시키고 말았다. 장보고의 ‘청해진체제’나 ‘동아시아체제’는 신라가 ‘동아시아의 해양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정치적 누명을 씌운 채 무참히 매몰시키고 말아버렸다. 이로써 동아시아 해양세력의 중심축을 송나라에 넘겨버리고 말았다.

무능해진 통일신라를 정복하고 반도의 통일체제를 다시 정비했던 고려의 태조 왕건은 ‘해양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승자’가 됨으로써 장보고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스스로 해양세력임을 부정하는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해양세력을 부정하는 왕건의 건국

이념은 결국 장보고의 해양세력을 허무하게 단절시켰으며, 나아가서는 해양 활동을 계속 천대시하였다. 다행히 해안일대에서 해양세력의 후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제독이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순신 스스로도 서남해안의 해양세력이 없었던들 나라도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에서 참패하였던 일본은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해양세력을 양성함으로써 끝내는 ‘해양의 출입문을 잠궤버린 대원군의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게 되었다. 9세기초 장보고가 있어 동아시아 최대의 해양세력을 가졌던 신라가 당시 동아시아 해양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표 IV-7>      주요 해양중심국의 지역경제권내 위상 비교(1995)

단위 : %

| 구 분     | 네덜란드 | 싱가포르 | 홍 콩  | 대 만  | 한 국  |
|---------|------|------|------|------|------|
| 면 적     | 1.1  | 0.02 | 0.01 | 0.4  | 1.0  |
| 인 구     | 4.0  | 0.8  | 0.4  | 1.5  | 3.2  |
| GDP     | 4.7  | 13.2 | 2.4  | 4.4  | 7.7  |
| 수출입교역   | 8.2  | 37.0 | 20.1 | 11.4 | 13.7 |
| 해상물동량   | 14.8 | 38.8 | 6.5  | 8.0  | 20.8 |
| 컨테이너물동량 | 17.9 | 57.6 | 31.1 | 19.5 | 11.2 |

자료 : 임종관, 「21세기 동북아시아 해운환경변화와 공동해운정책 추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4. p.88.

주: 네덜란드 - EU 15개국에서의 위상.

싱가포르 - ASEAN 5개국에서의 위상.

홍콩, 대만, 한국 - 동아시아(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에서의 위상.

해양활동을 경원하여 역사적 비운을 겪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고대문명의 4대 발생지였던 인도와 중국도 해양세력의 강자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세계무대의 승자가 되었던 해양국가들이 미국처럼 반드시 큰 나라였던 것도 아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승리자 노릇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은 훌륭한 해양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지역경제권의 중심국이 되었다(<표 IV-7> 참조). 예를 들어 유럽의 해양중심화전략을 추진한 네덜란드나, 동남아의 해양활동을 주도한 싱가포르

포르, 또 중국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해양거점화전략을 추진해온 홍콩의 경우 막대한 부가효과를 보고 있다. 홍콩의 인구와 면적이 동북아지역의 0.01%와 0.4%에 불과하지만, 교역의 비중은 동북아의 20%가 넘고, 컨테이너물동량은 31%를 초과하는 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홍콩은 해양관련산업이 GDP의 20%와 총고용의 12%를 차지할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되새겨 볼 때, 장보고가 남긴 가장 큰 역사적 메시지는 해양활동이 국가번영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2) 해양개척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장보고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장악이라는 결과물에 대해 찬탄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것처럼 ‘위대한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분석적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위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그 이유는 장보고의 해양경영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시각에서 장보고 해상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장보고의 원대한 꿈, 불굴의 의지와 노력, 지혜와 전략 등이 ‘청해진 체제’와 ‘동아시아체제’에 면밀히 구현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선 ‘청해’라는 개념이 장보고의 원대한 꿈을 담은 것이며, ‘청해진’은 그 위치, 조직구성, 성과를 볼 때 천재적인 지혜를 담은 것이며, ‘청해진 대사’는 신라왕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1200여년 전의 사실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 엮어서 경영하였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체제는 현대적인 국제경영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보고 해양경영학’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표 IV-8> 참조).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양무대를 제패하였다’는 역사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해양개척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모델’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장보고의 ‘과학적인 해양경영모델’이야말로 장보고 해상활동의 진정한 성과이며 값진 유산이다. ‘동아시아 해양무대의 제패’는 ‘장보고 해양경영모델’의 결과물일 뿐이다.

&lt;표 IV-8&gt;

## 장보고 해양경영의 모델과 시사점

| 구 분     | 구성 요소                              | 내 용                                                                  | 시사점                                                                   |
|---------|------------------------------------|----------------------------------------------------------------------|-----------------------------------------------------------------------|
| 장보고 개인  | '청해'                               | - 바다를 지배한다                                                           | - 원대한 계획, 강력한 의지                                                      |
|         | 입당                                 | - 입당후 성공                                                             | - 도전의식, 모험정신,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                                             |
|         | 해양경영자<br>해양지도자<br>해양전략가            | - 청해진체제 경영<br>- 동아시아체제 경영<br>- 동아시아 해상권 장악                           | - 해양기업가 및 해양 전문경영자 양성<br>- 해양전략가 필요                                   |
|         | 청해진체제                              |                                                                      |                                                                       |
| 청해진체제   | '청해'                               | - 바다를 지배한다                                                           | - 체계적인 계획과 의지                                                         |
|         | 청해진                                | - 군사조직과 무역조직의<br>이원적 시스템<br>- 해적소탕                                   | - 이업종 교류<br>- 산업간 지식교류<br>- 종합산업전략<br>- 해상 안정성 필요                     |
|         | 청해진대사                              | - 장보고목적과 신라 조정의<br>목적간에 조화 및 제휴                                      | - 정부와 기업간 협력<br>- 전략적 제휴                                              |
|         | 완도                                 | - 지리적 중심지<br>- 해류의 길목                                                | - 전략적 요지 활용<br>- 과학적 접근                                               |
|         | 교관선                                | - 쌍돛배                                                                | - 여건에 맞는 기술개발                                                         |
| 동아시아 체제 | 국제적 단일시스템                          | -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br>경영체제로 구성                                           | - 동아시아 시장통합<br>- 범위의 경제<br>- 국제적 네트워크 필요                              |
|         | 활동의 자율성                            | - 신라조정으로부터 독립적<br>인 체제                                               | - 해양국제경영에서 기업의<br>자율성 필요                                              |
|         | 재당신라인과 재일<br>신라인 활용                | - 장보고 해상무역에 적극<br>참여                                                 | - 해외교포의 참여<br>- 인력의 국제적 활용<br>- 지식과 노하우의 국제적 활용                       |
|         | 법화원 창건<br>하카다 사무소                  | - 현지투자<br>- 재당신라사회 지휘소<br>- 현지정보수집                                   | - 해외거점확보 및 직접투자의<br>필요성                                               |
|         | 초주                                 | - 내륙을 통괄할 수 있는 기지                                                    | - 해양경영에서 내륙기지도 필요                                                     |
|         | 양주                                 | - 이슬람 상인들과의 교류점<br>- 세계적 무역 및 교류의 연<br>계기지                           | - 연계체제 필요<br>-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략거점<br>필요                                  |
|         | 청해진                                | - 동아시아체제의 경영본부<br>(지휘본부, 정보센터)                                       | - 효율적 지휘본부와 정보센터 필요<br>- 해양중심화전략 필요                                   |
|         | 해상권장악                              | - 우수한 인력과 항해술 및<br>강력한 선단(교관선)으로<br>항로장악<br>- 진입장벽 형성<br>- 독점적 지위 유지 | - 무역에서 해운력(선원, 선대)의<br>필요성<br>- 해양인력 양성 및 해양기술개발<br>필요<br>- 시장장악전략 필요 |
|         | 신라, 당, 일본 왕<br>족과 귀족 및 지방<br>호족 상대 | - 왕족들과의 연락망구축<br>- 이윤 높은 진귀품, 희귀품,<br>애호품 취급                         | - 외교적 역량 필요<br>- 해양경영의 전략적 마케팅<br>필요                                  |
|         | 성과 및 기여도                           | - 신라, 당, 일본 모두에 기여                                                   | - 해양경영의 국수주의 지양<br>- 현지국에 기여 필요                                       |

#### 4.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

장보고는 기본적으로 국제 해양경영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된다. 해양을 주제로 한 철학자나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해양사상의 고취문제에 있어서 장보고는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해양은 도전과 모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의 대상이자 생명의 원천으로서 보호의 대상이고, 인류상호간 교류의 광장이자 치열한 경쟁의 무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해양도 경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류의 상업적 지혜는 끝이 없어 해양환경 보호라는 반상업적 문제마저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해양은 경영의 대상이자 경쟁무대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장보고는 상당히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의 해양에 대한 열정적인 도전과 성공, 그의 해양경영체제 등은 기업차원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활용가능한 현대적 시사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상황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해 본다. 국민들의 인식상황에 대한 점검은 해양수산부가 1998년 12월에 실시했던 여론조사결과를 활용하기로 한다.

##### 1) 장보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와 개선방향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장보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86.7%에 이른다(<표 IV-9> 참조). 특히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97.7%에 이르는 것으로 완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보고의 활동성과인해적소탕과 해상무역장악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83% 이상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더 높은 편이었다(<표 IV-10>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장보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장보고에 대한 호감도가 79.4%로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호감도는 67.9%로 크게 낮아진다(<표 IV-11> 참조). 이처럼 청소년들의 장보고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은 장보고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신라왕조에 반역하였다

&lt;표 IV-9&gt;

## 장보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단위 : %

| 구 분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인 지    | 86.7  | 97.7  | 84.4      |
| ○비인지    | 13.1  | 2.3   | 15.2      |
| ○모름/무응답 | 0.2   | -     | 0.5       |
|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 해양수산부 여론조사결과, 1998. 12.

&lt;표 IV-10&gt;

## 장보고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민족 보호 | 86.4 | 92.1 | 86.6      |
| ○동북아시아 해상무역 장악    | 83.8 | 86.1 | 84.2      |
| ○독자적인 세력을 거느린 토호  | 46.1 | 47.0 | 45.8      |
| ○해외동포를 하나로 뭉치게 함  | 38.7 | 32.8 | 37.5      |
| ○권력을 위해 신라왕조에 반역  | 23.7 | 32.1 | 25.5      |

자료 : &lt;표 IV-9&gt;와 동일.

주 : 1) Base - 1,040명.

2) 각 항목 모두 질문.

&lt;표 IV-11&gt;

## 장보고대사에 대한 호감도

단위 : %

|              | 전체국민 |      | 청소년  |      | 연안 및 도서지역 |      |
|--------------|------|------|------|------|-----------|------|
| ○매우 호감       | 30.2 | 79.4 | 16.6 | 67.9 | 28.2      | 79.9 |
| ○호감가는 편      | 49.2 |      | 51.3 |      | 51.7      |      |
| ○호감가지 않는 편   | 18.5 | 19.5 | 30.5 | 31.8 | 18.5      | 19.6 |
| ○전혀 호감 가지 않음 | 1.1  |      | 1.3  |      | 1.1       |      |
| ○평 균         | 3.10 |      | 2.83 |      | 3.08      |      |

자료 : &lt;표 IV-9&gt;와 동일.

주 : 1)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함.

2) Base - 1,040명.

는 인식(32%)이 장보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31.8%)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번째 문제점은 장보고에 대한 인식이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장악이라는 결과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즉 결과만 인식되고 성과의 원인 즉 해양경영의 과학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해적소탕이라는 전투적 인식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해진의 진정한 목적과 해양경영의 과학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보고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가 개척적(7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보고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경영사례가 중점적으로 홍보되면 국민들의 호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신라왕권에 대한 장보고의 반란여부가 장보고 이미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 2)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와 개선방향

해양수산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바다에 대한 관심(77.5%)이 많고, 해양주권적 인식(95.4%)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표 IV-12>, <표 IV-13> 참조). 그리고 바다가 국가적 자원이라는 인식(92.4%)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개발이나 보전이나'의 선택에서는 보전을 선호하는 경향(82.2%)이 압도적이며, 이러한 판단 때문에 해양정책 중에서 해양환경 보전문제를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표 IV-14>, <표 IV-15>, <표 IV-16>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경쟁력은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구조는 해양에 관한 쟁점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해양보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양관련 개발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를 지나치게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판단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해양경쟁력이 너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개발을 기피하고 보전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지 않으면 해양관련 개발이 국민들의 반감을 축적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해양개척에서는 환경보호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해양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lt;표 IV-12&gt;

##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 구 분     | 전체국민 |      | 청소년  |      | 연안 및 도서지역 |      |
|---------|------|------|------|------|-----------|------|
| 매우 관심   | 19.7 | 77.5 | 10.4 | 68.0 | 22.4      | 81.7 |
| 관심있는 편  | 57.8 |      | 57.6 |      | 59.3      |      |
| 관심없는 편  | 21.3 | 22.4 | 28.8 | 32.0 | 17.0      | 18.3 |
| 전혀 관심없음 | 1.2  |      | 3.2  |      | 1.4       |      |
| 평 균     | 2.96 |      | 2.75 |      | 3.03      |      |

자료 : <표 IV-9>와 동일.

주 :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함.

&lt;표 IV-13&gt;

##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단위 : %

| 구 분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예   | 95.4  | 91.9  | 95.2      |
| 아니오 | 4.6   | 8.1   | 4.8       |
|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 <표 IV-9>와 동일.

&lt;표 IV-14&gt;

##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바다에 대한 인식

단위 : %

| 구 분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예   | 92.4  | 85.8  | 91.4      |
| 아니오 | 7.6   | 14.2  | 8.4       |
|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 <표 IV-9>와 동일.

&lt;표 IV-15&gt;

## 해양정책 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구 분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 해양환경보전    | 290  | 2.87 | 2.90      |
| ○ 해양주권의 강화  | 2.74 | 2.63 | 2.72      |
| ○ 해상방위력 증강  | 2.72 | 2.56 | 2.71      |
| ○ 수산업 육성    | 2.67 | 2.62 | 2.72      |
| ○ 해양자원개발    | 2.64 | 2.69 | 2.65      |
| ○ 해양안전 확립   | 2.64 | 2.54 | 2.63      |
| ○ 관광산업 육성   | 2.55 | 2.60 | 2.56      |
| ○ 사회기반시설 건설 | 2.54 | 2.39 | 2.57      |

자료 : &lt;표 IV-9&gt;와 동일.

주 : 1) 3점 만점시 평균점수.

2) 각 항목 모두 질문.

&lt;표 IV-16&gt;

## 해양의 '개발' 對 '보전'에 대한 의사

단위 : %

| 구 분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보전우선   | 82.2  | 86.4  | 79.9      |
| 개발우선   | 15.8  | 13.3  | 18.3      |
| 모름/무응답 | 2.0   | 0.3   | 1.8       |
|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 &lt;표 IV-9&gt;와 동일.

&lt;표 IV-17&gt;

## 한국의 해양경쟁력 평가

단위 : %

| 구 분    | 전체국민  | 청소년   | 연안 및 도서지역 |
|--------|-------|-------|-----------|
| 일 본    | 69.5  | 69.3  | 69.0      |
| 중 국    | 9.9   | 8.1   | 7.9       |
| 한 국    | 8.8   | 12.9  | 11.5      |
| 러시아    | 5.9   | 6.8   | 4.1       |
| 모름/무응답 | 2.9   | 1.8   | 7.5       |
|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 &lt;표 IV-9&gt;와 동일.

### 3)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중세이후부터 서양 여러 나라들은 해양시대를 열어 해양으로 적극 진출한 반면에 우리 나라는 고려이후 해양배척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마도 중국대륙의 관념적인 사고와 생활양식에 집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에 대한 인식이 관념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여론 조사결과 나타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는 최근의 해상오염문제·독도문제·어업협정문제 등과 같은 첨예한 이슈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장보고에 대한 높은 인식도 ‘해상무역 제패’와 ‘해적소탕’이라는 결과를 암기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해양이 왜 중요한지’, ‘해양의 효과가 무엇인지’, ‘장보고가 어떻게 동아시아 해양무대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 등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적 인식이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국민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층이나 지도층에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해양사상의 고취방향은 해양이 중요한 구체적 이유와 해양의 국민적 효과를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구체적 기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바다로 나아가 관찰하고, 도전하고, 체험하고, 실험하고, 생활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해양친화적인 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장보고의 해양개척 및 경영모델’과 같은 해양성 공사례를 인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해양성공사례집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사상의 체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해양인력과 해양지식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사상 고취방향의 기본은 해양친화적인 교과내용을 정립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편 해양에 대한 국민적 체험을 활성화시키려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해양관련 정보가 체계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인류에 대한 해양의 기능을 보면, 해양은 인간의 ‘교감대상’이며, ‘도전의 대상’이고, ‘개발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해양은 인간 상호간의 ‘교류장소’였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오염과 파괴로 인해 이제는 우리의 ‘보호대상’으로 강

조되고 있다. 21세기에는 해양이 인간의 객체적 대상으로 그치지 않고 ‘대중적 생활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해양의 미래적 기능은 ‘인간생활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양은 종합산업으로서의 경영대상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양의 기능별 인식목표와 적용사상, 그리고 사상적 고취방향의 개요를 정리하자면 <표 IV-18>과 같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해양사상의 체계를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lt;표 IV-18&gt;

해양사상의 체계와 분야별 고취방향

| 해양의 기능       | 인식목표      | 해양사상                                         | 고취방향                           | 해양산업                                       |
|--------------|-----------|----------------------------------------------|--------------------------------|--------------------------------------------|
| 인간의 교감대상     | 정서의 원천    | - 해양철학<br>- 해양문화                             | - 해양접근 활성화                     | - 해상공관<br>- 해양문화                           |
| 인간의 도전대상     | 신천지       | - 도전·용전사상                                    | - 모험·도전 유도                     | - 해양탐험<br>- 해저관광                           |
| 인간의 개발대상     | 자원의 보고    | - 해양 개척·개발사상                                 | - 해양기술 개발<br>- 실험              | - 해양과학기술<br>- 수산, 양식                       |
| 인간 상호간 교류 장소 | 치열한 경쟁 무대 | - 해양영토사상<br>- 해양주권사상<br>- 해양지배사상<br>- 해양경쟁사상 | - 현장체험<br>- 역사적 사례<br>- 유적지 답사 | - 군수산업<br>- 해양외교<br>- 해상운송<br>- 조선<br>- 무역 |
| 인간의 보호대상     | 생명의 원천    | - 해양생명 사상                                    | - 관찰, 경험, 실험                   | - 해양생명산업                                   |
| 미래적 기능       | 대중적 생활 공간 | - 해양생활사상                                     | - 실험적 생활                       | - 종합산업<br>- 미래산업                           |

---

##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재조명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제패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밝혀내고 역사적 시사점과 해양개척의 모델을 정립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장보고와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를 점검하여 21세기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하는 데 2차적 목적을 두었다(제1장 참조).

따라서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재당 신라인들의 출현배경과 활동상황, 장보고의 출신배경과 당나라 체험, 통일신라 하대의 사회상황 등을 점검하였다(제2장 참조).

그리고 장보고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 피살될 때까지의 해상활동내용을 살펴보았는바, 우선 청해진의 설치시기와 형식·청해진대사라는 명칭의 의미·설치위치·청해진의 실체적 성격·청해진의 설치 목적·조직구성 등을 기준으로 청해진의 특수성을 규명하였으며, 장보고의 해상활동내용은 항로운영과 무역활동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청해진체제의 붕괴과정을 살펴보았는바, 특히 장보고의 피살시기와 연관된 반란 여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청해진체제의 붕괴원인과 교훈을 제시하였다(제3장 참조).

이상과 같이 장보고 해상활동의 배경과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재조명하였다. 우선 장보고에 대한 기존 연구의 평가내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체제적 접근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장보고 해상활동의 성과와 의의 및 성공요인을 규명하여 역사적 시사점과 해양개척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해양사상 고취방향을 제시하

였다(제4장 참조).

우선 기존의 연구내용과 장보고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장보고에 대한 평가는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위대한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보고 세력의 기반과 배경 및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였으나 빈약한 기록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양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란한 용어를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보고 해양경영의 실제적 의미를 전달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장보고가 신라조정의 왕권투쟁에 참여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연구가들이 장보고를 ‘위대한 해양인’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인 이미지와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보고가 구축했던 체제를 분석한다는 시각에서 그의 해상활동을 재조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보고는 청해진체제와 동아시아체제를 구축하였는바, 청해진체제는 ‘바다를 지배한다’는 그의 전략적 의지가 담긴 기본체제임과 동시에 신라 왕과의 전략적 제휴를 상징하는 체제였다. 그리고 ‘청해진대사’라는 직함은 이러한 제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표 IV-2> 참조).

둘째, 장보고의 동아시아체제는 신라의 청해진, 일본의 하카다, 산둥반도의 적산포, 양자강하구의 양주 등을 전략기지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으며 각각의 기지들은 독특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다(<그림 IV-1>, <표 IV-3> 참조).

셋째, 이러한 무역체제는 무역의 범위(범위의 경제), 무역형태(수출입, 중계무역, 연계무역), 주요 고객(왕족, 중앙귀족, 지방부호 및 관리), 추진방식(현지화, 네트워크 구축, 연계체제 구축), 운송방식(직접운송, 연계운송, 물류기지 활용) 등에 있어서 가히 현대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IV-4> 참조).

넷째, 장보고의 동아시아체제가 거둔 성과는 ‘동아시아 해상무역 제패’라는 개인적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었고, 동아시아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IV-5> 참조).

다섯째,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장보고의 자질측면, 시대적 환경의 활용측면, 경영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경영학에서 강의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표 IV-6> 참조).

여섯째, 따라서 장보고가 남긴 시사점은 해양활동이 번창하면 국가가 흥하고 해양활동이 위축되면 국가가 쇠락한다는 역사적 교훈뿐만이 아니라, 해양이 하나의 경영대상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양개척의 교훈을 남겼다. 특히 ‘장보고 해양경영 모델’이야말로 장보고 해상활동의 진정한 성과이며 값진 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표 IV-8> 참조).

일곱째, 장보고의 역사적 이미지를 크게 퇴색시켜 온 반란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피살시기와 주변 귀족세력들의 출신배경 및 정치적 전략을 연계시켜 봄으로써 반란이 부정될 수 있다는 상황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장보고 및 해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도는 다분히 관념적인 인식의 수준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의 인식실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보고가 성공한 요인이나 위대한 이유 등은 인지되지 않은 채 반란 문제가 사실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청해진 설치의 진정한 목적과 장보고의 과학적인 해양경영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해양이 국가적 자원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개발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배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해양이 중요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양사상을 체계적으로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의 해양사상은 해양의 기능별 인식목표를 명확히 하여 각 기능에 맞는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표 IV-18> 참조). 특히 미래지향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미래에 해양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결론은 장보고가 군사적 인물이나 정치적 인물로 평가되기보다는 ‘국제경영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세기초에 동아시아 해양을 지배한 후, 신라, 중국, 일본 등에 단일경영체제를 건설하여 동남아와 중동까지 연결되는 ‘아시아 해양교류체제’를 구축한 점은 세계 해양교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경옥, "淸海大使 장보고의 一生", 「국향사료보」, 1992. 12.
- 김광수·김재근·이기동, 「장보고의 新研究」, 완도문화원, 1985.
- 김덕수, "장보고의 해상무역에 관한 一考察", 「한국해운학회지」, 1988.
- 김문경, 「장보고 연구」, 1993.
- , 「청해진의 장보고와 동아시아」, 향토문화진흥원, 1998.
- 김문경·김성훈·김정호, 「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이진, 1993.
- 김상기, "고대의 무역형태와 羅末의 해상발전에 대하여", 「진단학보」, 1934-5.
- 김성호, 「중국진출백제인의 해상활동 일천오백년 1·2」, 맑은소리출판사, 1996.
- 김재근, "장보고시대 무역선과 그 항로, 1·2·3", 「해운항만」, 1988. 3/6/9.
- 민성규, "고대동아시아 해운활동과 장보고", 「해양한국」, 1997. 10.
- 손보기, 「장보고와 청해진」, 도서출판 해안, 1996.
- 신복룡, 「円仁의 入唐求法巡禮紀行」, 정신세계사, 1991.
- 윤내현·김정호·임사민, 「장보고 해양경영사 研究」, 이진출판사, 1993.
- 이기동, "장보고와 그의 해상왕국 1~4", 「해운항만」, 1986. 3/6/9.
- 이기백, 「韓國史新論」, 일조각, 1978.
- 임종관, 「21세기 동북아 해운환경변화와 공동해운정책 추진방안」, 1997. 4.
- , 「21세기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화물운송센터 구축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3.
- 이영택, "장보고 해상세력에 관한 고찰", 해양대학논문집, 1979. 중앙대학 동북아연구소, 「淸海鎮 장보고大使 해양경영사 연구」, 중앙대학출판부, 1993.
- 최남선, "一千一百年前의 東方 海王 「新羅 淸海鎮 大使」 張保臯", 「六堂

- 崔南善 全集」,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 石井正敏, "円仁と張 高-入唐日本人と新羅人", 「図説 人物海の日本史Ⅰ海上の道と古代人」 毎日經濟新聞社, 昭和54年6月1日 發行, p.122).
- 蒲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臯の 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 「朝鮮史の發展と國際的契機」,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第16集, 1979. 3. 31.
- E. O. Rei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The Ronald Press Co., New York. 1955.